

한국평협과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 응원 이벤트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이번 모바일 복음 쓰기 이벤트는 본당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을 모아 말씀을 읽고 쓰고 새기며 흠어진 공동체를 회복하고,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응원의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천주교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이벤트 기간	2020년 6월 1일 ~ 7월 10일 (40일간)
참여 방법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바일앱 [가톨릭] 설치 후 앱에서 참여
시상(본당)	전체 1등 200만원
	2등 150만원
	3등 100만원
	교구별 1등 각 50만원
	특별상 각 50만원(해외, 도서벽지 3개 본당)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Catholic Lay Apostolate Council of Korea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020년 여름 계간 68호

평신도

2020년 여름

평신도



- 인 사 인사말
- 소 식 행사 일정
- 특 집 감사나눔
- 만 남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수도회 탐방
- 나 눔 김수환 추기경 유물 소개 1
근 · 현대 신앙의 증인들 2
나의 신앙 선조
- 이 콘 예수님의 이콘
- 순 례 성지순례
- 이야기 포콜라레 운동
주보성인과 나
- 독 자 나의 신앙생활
- 배 움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평신도 양서
- 동 정 교구평협 · 회원단체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평신도

CONTENTS

인사

02 손병선 회장

소식

04 6월-8월 행사 일정 / 엄지유

특집

06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 유영주

09 5감사일기로 감사를 습관화한다 / 이은호

12 감사 나눔, 신앙인이 앞장서야 / 최경호

만남

15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 나권일

21 수도회 탐방 / 서희정

나눔

25 김수환 추기경 유물 소개 1 / 송란희

29 근·현대 신앙의 증인들 2 / 김주완

33 나의 신앙 선조 / 김혜원

이콘

35 예수님의 이콘 / 장금선

순례

38 성지순례 : 프랑스 / 김원창

이야기

43 포콜라레 운동 / 최태교

47 후보성인과 나 / 정성운

독자

49 나의 신앙생활 / 윤채은

배움

51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 고종희

54 평신도 양서 / 김선동

동정

56 교구평협·회원단체 / 엄지유

발행인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담당사제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발행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편집장	권영빈 가브리엘
편집위원	김병호 토마스 아퀴나스, 김선동 루카, 김주완 라우렌시오, 나권일 토마스, 서희정 마리아, 송란희 가밀라, 최태교 안드레아 (가나다 순)
제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표지	심순화(가타리나) 작가가 지난 3월 27일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인류를 위한 특별기도와 축복예식을 거행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습을 보고 겻세마니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신 예수님 을 떠올리며 영감을 얻어 그린 작품.

회장 인사말

4차 산업혁명시대 파고 속에 바이러스가 채찍 들고 다가온 지구촌! 강제 소환당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대비해야 할까요?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 중에 세상을 떠난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투병 중인 환우들과 수고하시는 의료진, 봉사자들에게도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혹독한 사순시기와 서로 간 위로, 격려의 부활시기, 성모성월을 보내면서 교회 내적으로도 많은 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대문명이 오만하게 올라왔던 ‘위태로운 균형’이 깨진 채 코로나 블루(우울감)를 디지털 미디어에 의존하는 완전히 달라진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온라인 르네상스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인터넷 교회, 디지털 종교가 될 것이란 말이 현실화되며 교회 미래에 대한 위기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교회는 항상 어려운 이웃에게 다가가야 함에도 전염병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다가가 수 없을 때 앞으로 교회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내야 할

지 새로운 과제와 신학적 고민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맞게 될 경제적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사람과 자가 격리만으로도 치명적 타격을 입는 사람 사이의 코로나 디바이드(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과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며 우리 모두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사랑의 십자가가 되어 어려운 이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일 때라 여겨집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렬하게 자각하고 그것을 기꺼이 우리 자신의 고통으로 삼아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자!”(『찬미 받으소서』 19항)

교황님께서는 지난 3월 27일 ‘코로나19’ 대 유행으로 고통 받는 인류를 위한 특별기도와 축복 예식(Urbi et Orbi, 로마와 전 세계를 향해)에서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연약하고 길을 잃은 사람인 동시에 같이 노를 젓고 서로 격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

구촌 내 많은 이가 힘겹고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 세계를 향한 교황님의 포용과 친밀함에 모두 감동했으며 인류에 대한 무한 사랑을 실감케 해주는 교황님의 실천적인 삶과 감동적인 말씀이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인류를 향한 이 메시지를 다 함께 사랑으로 꽃피워 희망의 십자가를 향해 서로 격려하고 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시다.

인류가 겪어온 대재앙을 들어 왔지마는 바이러스의 공격과 팬데믹 공포 속에 우리 삶을 통째로 삼키며 무너진 지구촌! 그동안 가시적 성취와 외적인 풍요로 질주한 현대문명의 허약성과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낸 채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경제위기의 먹구름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현대문명의 성장과 발전, 생태계의 혼란과 자연의 반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어 왔지마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19’와 같은 ‘비가시적인 것’들이 활기차게 번식해 왔음을 일깨워 주고 있으며 현대의 안락이 무엇을 희생했는지, 우리가 추구한 문명적 가치가 과연 정상적인 것들인지를 되묻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류가 맞닥뜨린 재앙에 대해 복음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마르코 복음사가는 선교 활동의 범위를 “온 세상”이고 그 대상을 “모든 피조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소외되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으며, 복음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에 전해져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자기 이익에 눈이 먼 인류의 생태계 파괴는 우리에게 피조물을 맡기신 주님의 당부를 간과하고 무시한 데서 비롯되었음을 반성하게 됩니다.

당연시했던 것들에 대해 코로나가 던지는 질

문들 속에서 문명의 해독제와 최고의 백신은 자연박에 없음을 깨달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이를 게을리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기후 변화로 인한 온갖 자연재해, 또 다른 신종 돌연변이 바이러스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며 앞으로 또다시 제2,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사도 2,14)라고 당부하십니다.

온 인류와 나라 간에는 “여러분은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대하십시오.”(1베드 5,5)

거대한 우주 질서나 자연의 조화 앞에서는 “하느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1베드 5,6)라고 말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겸손함과 단순함을 배우는 소중한 체험으로 받아들이며 다른 어느 때보다 버거운 고통 중에 맞는 예수 성심 성월에 회심의 마음으로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저마다 지닌 여건 안에서 더 채우고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진 것 중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각자 정화의 시간을 가져 버림과 따름의 균형 있는 신앙생활로 새 옷을 갈아입도록 합시다.

예수님 부활의 증인과 기쁨이 되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서로 소통과 공감, 연대와 협력하면서 다 함께 잘 사는 신앙 여정, 기운찬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이 사회의 선한 이웃들이 마치 ‘노아’처럼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받아들인다면(『찬미 받으소서』 71항), 세계는 헛된 성장의 신화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전환하고 지구촌의 파국을 비켜 갈 수 있을 것입니다.”(한국천주교 주교단 기후 위기 성명서에서-2020. 5. 8)

교구평협·회원단체 6월~8월 행사 일정

교구평협 행사 일정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전반기 연수회

- 일시 : 6월 19일(금) ~ 20일(토)
- 장소 : 마산교구 가톨릭교육관
- 문의 : 02-757-7851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서울평협 회원 연수

- 일시 : 7월 18일(토)
- 장소 : 성 앵베르 센터
- 문의 : 02-777-2013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우리본당의 자랑스런 평신도 찾기

- 후 보 자 : 춘천교구 내 본당의 설립과 발전과정에서 남다른 사랑과 봉사의 실천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사시다가 주님의 품안에 안기신 분
- 추 천 자 : 후보자를 잘 알고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본당 사목회
- 접수기간 : 6월 30일까지
- 접 수 처 : 춘천평협(033-243-4416, FAX 033-253-8586)

- 홍보책자 : <자랑스런 춘천교구 평신도>(중보판) 발간하여 배포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정기총회(겸 대위원 연수)

- 일시 : 6월 20일(토)
- 장소 : 의정부 신양교육원
- 문의 : 031-876-2004

▶ 여성단체장 연수

- 일시 : 6월 22일(월)
- 장소 : 의정부교구 호원동성당
- 문의 : 010-9072-8132(여성분과장)

회원단체 행사 일정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 상반기 전국 회장단 회의

- 일시 : 6월 18일(목)
- 장소 : 부산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
- 문의 : 02-451-0333

일정은 주최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집 감사 나눔



I.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유영주 헬레나

II. 5감사일기로 감사를 습관화한다.

이은호 테오피로

III. 감사 나눔, 신앙인이 앞장 서야.

최경호 루도비코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유영주 헬레나 / 예그리나 행복아카데미 이사·행복나눔125 사무국장



연초록빛 파릇파릇한 4월의 생동하는 봄은 가슴을 설레게 하는데, 4월을 맞이하는 우리들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정말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전국의 의료진과 방역요원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봉사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로 응원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많은 변화가 주었습니다.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으니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내가 확진자가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심신을 지치게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인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이런 상황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만약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그때는? 이런 상황에서의 감사는 무엇일까? 고민하며 자문자답하는 사색과 성찰의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수 년 동안 지속해 온 감사 쓰기, 감사 나눔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10여 년 전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저는 행복나눔125 본부 제안으로 몇몇 강사들과 100감사쓰기 체험을 하였으며 이



▲ 매일 작성하는 개인 '감사노트'



▲ 남편과 함께 쓰는 '5감사 노트'



▲ 경주에서 개최되었던 7개 중단 '답게 살겠습니다' '감사나눔' 강의



▲ 예그리나 행복아카데미에서 감사나눔활동을 하는 강사들과 함께. 좌부터 이은호, 조현옥, 백보경, 유영주

후, 지속적인 감사에 대한 공부를 나누며 우리는 스스로 감사불씨가 되어 행복한 감사나눔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체, 학교, 지자체 등 많은 곳에서의 감사나눔보다 평범한 일상이 중단된 지금이 더 감사한 것은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었던 일들에서 감사를 찾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함께 쓰는 '5감사 노트'는 우리 부부의 소통 통로이며, 92세 시어머니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나를 지탱해주는 감사교(感謝敎)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작성하는 개인 '감사노트'는 하루 일과를 감사로 정리하는 것으로 개인 역사이기도 합니다. '행복나눔125 홈페이지'에 올리는 <감사를 보다> 포토에세이는 사물과 자연을 보는 시각을 감사로 연결 확대시켜 주었습니다.

지난해 저는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초청으로 감사나눔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다양한 감사 활동을 나누고, '답게 살겠습니다'에 '감사나눔운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함께 자리하신 분들과 소통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경주에서 개최되었던 (사)한국사회평화협의회 7개 중단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실천하는 '감사나눔' 강사로 함께하게 되었으며, 타종교에도 초대되어 감사나

눔으로 행복한 종교인이 되고자 하는 염원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은 각 분야에서 자기 몫을 다하며 군림하는 내가 아닌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부처님처럼 자비를 베푸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 자신을 성찰하고자 하는 '나답게 살겠습니다'는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내가' '나를 사랑하고 감사하며 사는지', '나누고 베풀고 배려하며 사는지', '말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지', '세상의 작은 예수로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하며 실천함으로써 하느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자기쇄신운동입니다.

'감사나눔운동'의 기본도 내 자신의 변화입니다. 감사를 쓰고,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나누다 보면 결핍보다 가진 것이 너무 많음을 알게 되고,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작고 소소한 일상들이 눈에 들어와 행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부터 시작된 감사파동은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해지고 소통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하면 삶이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럼 오늘부터 주변



▲ '몸과 마음이 행복해지는 감사나눔' 프로그램 진행



▲ 파주민족화해센터에서 '더불어 행복해지는 감사나눔' 주제로 강의

을 세심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관점의 전환을 통해 여유를 갖고 생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늘 하고 있는 실천을 함께 해 보시길 청해 봅니다.

작은 노트에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한 5가지 감사로 써 보십시오. 매일 아침 건강하게 시작하는 자신에게, 매일 밥을 함께 먹는 가족에게, 매일 나를 반기는 강아지에게, 매일 귀가할 집이 있다는 것에,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짐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감사나눔 활동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가족(지인) 카톡방에 '감사합니다'라는 말 올리기(작은 실천이 중요해요)

둘째, 핸드폰에 있는 가족사진을 보며 '감사합니다' 하고 혼자 말하기(가족이 우선이에요)

셋째, 가족들 한 번씩 안아주며 '감사합니다' 말하기(용기를 가지세요)

넷째, 생일이나 경축일에 5감사카드나 감사편지 전달하기(손편지에 감동해요)

다섯째, 하루에 2명, 감사통화하기(메시지도 좋아요)

여섯째, 이웃에게 감사하기(관리장님, 택배기사님 등 감사 인사로 행복을 나누어요)

일곱째, 하느님께 감사 기도하기(주님께 감사를

돌려드려요)

여덟째,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 감사 화살기도하기(대신 하느님께 기도해 주세요)

아홉째, 화나고 짜증날 때 하느님께 감사하기(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어 감사해요)

열째, 감사나눔 실천으로 변화된 내 모습을 상상하며 미리 감사하기(내 삶의 주인공은 나!)

감사나눔으로 내가 변하면,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변합니다. 작은 겨자씨가 나무 그늘을 드리우는 큰 나무로 크듯 나로 인해 이웃들이 변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기억하며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성경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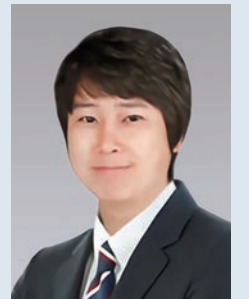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1테살 5,16-18).

감사합니다. 🙏

특집

5감사일기로 감사를 습관화한다

이은호 테오필로 / 평협 홍보소통위원회 위원



MBC 공채 개그맨이자 웹툰작가(MLB 코메튼, 엠스플 뉴스)인 나는 2016년부터 감사운동 지도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감사운동 지도자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감사습관화를 지도하여 개인의 행복감과 정서적 안녕감을 올리고 조직의 소통과 생산성 증대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감사운동지도자로 활동을 시작한 후 학교, 군부대, 기업 등 많은 곳에 감사습관화 교육을 위해 파견교육을 다니는데 아이들에겐 긍정언어 사용을 위한 도구로, 군부대에선 사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도구로, 기업에선 소통을 위한 도구로 감사습관화 교육이 활용되고 있다.



여주지역아동센터 감사편지 쓰기

지역아동센터 감사습관화 교육 중 일이다. 명진(가명)이는 유독 옆친구에게 시비를 걸며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고 거친 행동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도움을 받은 것을 떠올려 보고 도움을 주신 분에게 감사편지를 써보면서 행동 또한 안정이 됐다. 명진이는 자신이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몰랐고 앞으로 더 많은 감사를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명진이의 사례를 보면서 감사쓰기가 아이의 생각과 행동에 긍정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군부대의 장병들이 가족에게 감사편지를 쓸 때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감사의 표현들이 나온다. 어린 아이 때부터 현재까지 자신에게 물심양면으로 베풀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한자 한자 감사일기를 써가며 눈물을 흘리는 장병들도 볼 수 있다. 한 장병이



▲ 여주지역아동센터 긍정정서지원 프로그램



▲ 6사단 포병연대



▲ 동원산업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로 인해 막내아들 기죽을까 노심초사 사랑을 베푸신 아버지께 대한 감사편지를 낭독할 땐 그공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함께 흘렸다. 또한 함께 고생하는 전우에 대한 감사편지는 전우애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런 감사습관화 교육은 일찌감치 기업에 도입되었다. 동원산업은 직원들의 소통창구로 감사습관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오랜 기간 바다에서 생활하며 참치 선망 일을 하는 동원산업 해상직원의 경우 노동의 강도도 높고 위험도 수반하기에 직원들 간 소통이 거칠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거친 소통은 마음의 상처를 줄 확률도 높아지기에 업무의 협력이 안될 가능성도 커진다. 이에 감사로 서로를 존중하고 위하는 소통으로 업무의 피로도를 낮추고 있다.

일상의 소소한 일들에 감사를 찾아보는 한것만화 ‘감.사.한.것’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감사한것은 (사)행복나눔125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무료로 연재가 되었는데 누적조회수가 300만건을 넘었다. 자극적인 콘텐츠들 사이에 감사를 그린 한 장의 그림이 사람들에게서 읽혀지고 있었다. 감사한것은 지금까지 총 128화에 걸쳐 연재가 되었는데 시간이 허락되면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한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감사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코로나 사태 이후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여유가 없어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그림에도 불구하고 매일 5가지 감사한 것을 일기에 쓰자는 제안을 한다, 그렇다면 왜 5감사일기 쓰기가 중요한가?

첫째, 행복 자각 훈련이 된다. 우리나라 말에도 있듯이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나 되는 생각



▲ 감사한것 1



▲ 감사한것 2



▲ 감사한것 3

을 한다. 그런데 그중에 부정적인 생각이 85%나 되니 우리는 이미 부정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훈련이 안 되면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조그만 변화를 찾아 일기로 쓰면서 스스로 행복을 느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사일기쓰기는 부정정서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

둘째, 삶의 가치를 발견한다. 우리는 오프라 윈프리(사진)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것을 감사라는 의식으로 바라보고 일기를 쓰면서, 삶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고,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찾아 나아갔다는 것이다. 결국 그녀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세계적인 방송인으로 성장했다.



셋째, 마음운동 훈련이 된다. 사람이 살다 보면 상처를 받는 일이 있게 마련이다.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은 몸이 불편할 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감사일기 쓰기는 마음의 운동이 되어 마음의 상처로부터 빨리 회복할 수 있다.

5감사일기 쓰기엔 3333법칙이 작용한다. 우선 작심3일의 벽부터 깨고 스스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3주를 넘기자. 나의 변화를 주변에서 알아보는 3개월(100일)을 넘기면 습관화가, 피와 살과 뼈가 바뀌는 1만 번의 법칙이 적용되는 3년을 넘기면 체질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감사의 체질화가 이루어지면 일부러 의식하지 않더라도 세상 모든 것에 감사가 깃들게 된다. 이것은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1테살 5,16-18) 말씀을 실천하는 천주교인의 자세와 다르지 않다. 

감사 나눔, 신앙인이 앞장 서야

최경호 루도비코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답게실천위원장



2019년 3월에 답게실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회장님이 제시하신 ‘답게 살기’ 위한 실천운동의 첫 사업으로 ‘감사 나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2014년 7월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답게 살겠습니다’운동 추진을 의결한 이래 종교계 7대 종단의 평신도 단체들의 동참 선포식을 비롯하여 많은 행사와 ‘답게 살기’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종교단체를 넘어 국회, 세종시청, 종로구청 등 공공기관도 동참하게 되었으며 ‘한국사회평화협의회’를 설립하여 활동하는 등 국민운동으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답게 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답게’가 개인의 성찰과 반성을 토대로 엄격한 실천을 해야 한다는 오해 등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선포식 위주의 행사로 진행되어 1회성으로 사업으로 종료되기도 하였다. 특히 선포식 후 실천에 대한 후속 프로그램이 없어 지속적인 운동으로 정착시키지 못한 면이 있었다.

따라서 이 운동을 보다 실천적으로 추진하고자 현 손병선 회장님께서 ‘답게살겠습니다특별위원회’를 ‘답게살기실천위원회’로 개칭하고 그 실천운동의 하나로 ‘감사 나눔’ 운동 전개하기로 했고 구체적으로 ‘감사일기쓰기’ 운동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 성경을 검색해보니 감사에 관한 성구가 126회(신약 71회)가 언급되고 있고 구약 시편(107,8)에서는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을 위한 그 기적들을.”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특히 바오로 서간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1테살 5,18)라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찾을 수 있었다. 감사는 하느님 백성들이 삶과 인간관계에 대해 긍정적,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베풀도록 하여 하느님이 바라는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도록 할 뿐 아니라 감사하는 생활 자체가 신앙 실천운동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또 감사일기쓰기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평가도 한몫했는데 감사일기 쓰기에 대한 관심, 필요성, 효과 등에 대해 대중에게 어느 정도 인지되어 있어 효과적인 동기와 교육 등이 수반되면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고 많은 학자들이 감사(일기)의 효과에 대해 실험결과 등의 발표와 더불어 도입을 권고하고 있어 충분한 이론적 바탕도 마련되었다. 예를 들면 “앤돌핀의 4천배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은 우리가 감사할 때, 감동받을 때 솟아난다.”(탈벤 샤하르, 하버드대 교수), “감사를 습관화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연봉을 2만

5천달러 더 받았고, 감사를 습관화한 사람은 평균 수명이 9년이나 길었다.”(로버트 에먼스, 캘리포니아대학교수), “긍정심리학자들은 심신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긴장을 푸는 명상이나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높다고 말한다.”(김주환, 연세대학교수) 등 긍정적 효과에 대해 실험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답게실천위원회’에서는 2019. 3. 29. 감사일기쓰기를 중심 사업계획으로 확정하여 감사일기 교육자료 제작 TF팀을 운영하여 교육자료를 제작하였으며, 강사진으로 20여 년 동안 감사운동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행복나눔 125 강사단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전문 강사단을 이 운동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강연활동과 행사를 추진하였다. 특히 7대 종단의 ‘답게살겠습니다’운동의 실천 방안의 하나로 감사나눔과 스마트습운동이 채택되어 7대 종단이 함께하는 ‘답게대로론회’ 및 ‘19년 답게살겠습니다 권역별 다짐캠페인’을 종단별로 실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픈 감사일기쓰기를

1개월 동안 시범운영했는데 카카오톡의 단톡방을 이용하였다. 답게실천위원회, 평협 제위원회, 신학원 졸업생 등 3팀 4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시범운영 대상 3곳 모두 참여율 15~45%로 저조했으나 참여한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지만 일부에서는 “사적 내용이 오픈, 자랑하는 것 같다,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다.” 등등이 나와 오픈식은 사적이고 친밀한 모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사일기쓰기 운동 방안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감사일기쓰기 추진 계획으로 대상은 1차로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2차는 서울대교구 전 본당 신자와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전 회원 및 해당 지역 본당 신자들, 3차는 7대 종단 신자들, 4차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기로 하였다.

감사일기쓰기를 막상 실천하려면 막연하여 그 필요성, 방법, 효과에 대한 확신이 필수적으로 홍보와 더불어 감사일기 작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연수자료를 개발하였지만 부분적으로만 활



11월 2일 감사일기 강의



▲ 감사일기 부스 답게위원과 봉사자



▲ 감사노트와 리플렛 은평 평화공원

용되어 안타까웠다.

원래는 강사로 답게실천위원회 위원, 평협 각 위원회 및 단체 중 해당 강의가 가능한 회원을 공모하여 운영하기로 구상하였으나 교육전례위원장을 비롯한 행복나눔 125 강사단과 협의회를 하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강사로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교육효과도 반감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들을 전문강사진으로 확보하여 활용하고 추후 교육 수요가 확장할 경우 강사단 양성교육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1차로 위원장회 위원장들을 대상으로 감사일기쓰기 교육을 실시했고 2차는 한국평협회장단과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하고, 3차는 7대종단 간부 250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예를 들어 보면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7대 종단 답게살겠습니다 운동본부)의 예산지원으로 시행한 2019.11.8(금) 17:00~21:00 은평평화공원에서 개최한 '청소년답게 공감단 스마트 쉽과 감사나눔 캠페인'을 들 수 있다. '피자먹고 얼굴피자'라는 부제로 서울가톨릭청년회(서울아지트)와 답게위원회가 주관하고 청장년위원회가 후원한 청소년과 지역주민 8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용부스를 설치하여 감사일기장 및 리플렛 배부, 감사

글 작성하여 '누구에게 감사한가요' 하트 1개와 감사나무 2개 게시판에 부착하기, 청소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감사쪽지 쓰기 등과 봉사자들이 감사쓰기 및 효과 설명을 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감사일기를 쓰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한줄이라도 매일 쓴다.
- 가급적 정해진 시간에 쓴다.
- 하루의 일상을 되돌아 본다.
- 현재 시제로 쓴다.
- 긍정문으로 쓴다.
- '때문'보다 '덕분'으로 쓴다.
- 구체적인 내용으로 쓴다.
-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한다.

신앙인으로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는 주님께 봉헌하고 그 순간의 모든 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채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해는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아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제 곧 종료가 되면 감사나눔과 스마트 쉽 운동을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만남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우리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고
도움 주는 일에 보람 느껴



정리
나권일 편집위원

백균철 바오로 /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총회장

한국 천주교회는 코로나19로 미사도 중단되고 단체 회합도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마산교구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였다. 공동체 안에서 미사를 드리고 성체를 영하지 못하는 아픔도 있었지만 본당마다 신자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재정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사랑이 빛나는 법이다. 마산교구는 배기현 교구장의 배려로 사제들과 평신도들이 의논해 본당에서 교구에 내는 납부금을 일시 면제해주는 슬기로운 대책으로 고비를 넘겼다. 기쁜 일이건 어려운 일이건 뜻을 모아 행동으로 보여주는 마산 평신도들이 모인 마산평협의 숨은 봉사자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찾아들지 않아 백균철 바오로 회장과 전화와 서면으로 소통할 수밖에 없었지만 전화 속 목소리에서 배려와 아쉬움이 묻어나왔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료를 모으는 데 협조해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신 바오로 회장께 감사드린다.

✧ 2월에 마산평협 26대 총회장에 취임하셨지요. 활동하고 계신 마산평협 자랑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산교구는 1966년 2월 15일 탄생했습니다. 당시 초대 교구장 김수환(스테파노) 주교님을 중심으로 22개의 본당이 '마산교구'라는 이름으로 척박한 서부경남의 땅에 희망의 빛을 비추게 되었지요. 마산평협은 그로부터 3년 뒤인 1969년 3월13일에 설립해 올해로 벌써 51년의 역사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배기현 주교님과 73개 본당, 173명의 사제단, 18만여 명의 신자들이 일치를 이루어 하느님 백성인 평신도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신심단체협의회와 사도직단체협의회, 후원단체협의회 등 50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본당과 교구 단체들이 부담 없이 서로 소통하고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아주 유연한 조직 구성으로 운영됩니다. 마산평협 담당이신 최봉원 신부님과 총회장인 저, 그리고 최종록(대건 안드레아) 수석부회장, 최남순



▲ 마산교구 26대 평협 임원진



▲ 마산평협 상임위원회 회의



▲ 정기총회(교구장님과 질의·응답)



▲ 교구청신축 기본설계 보고회의

(스텔라) 여성회장 등이 주요 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수환 초대교구장 모신 은총의 마산 교구 평협

❖ **지난해 평협 50주년을 아주 뜻깊게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산평협 평신도들은 은총을 가득 받고 살고 있습니다. 2018년에 ‘한국 평신도의 희년’을 산 데 이어 2019년 3월에는 평신도 사도직운동 50주년을 자랑하게 됐으니까요. 흔히 나이 50을 지천명(知天命)이라 하잖아요. ‘하늘의 뜻을 안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본다면 지천명을 맞은 우리 마산평협도 이제는 하느님의 뜻을 어렵듯이 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50주년을 맞아 하느님의 고귀한 뜻을 가슴에 품고 사도직 운동을 실천하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Renew-새로운 평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 다짐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9년 3월 16일 주교좌성당인 양덕동 성당에서 ‘평신도, 나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한 원로 사목자 이제민 신부님을 모시고 귀한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날 교구장 배기현 주교님의 주례로 역사적인 마산평협 50주년을 맞는 기념미사가 봉

헌되었습니다. 배 주교님께서 강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신도는 하느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며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거룩함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우리가 믿고 서있어야 하는 것은 하느님의 진리이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지상에 건설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거룩해져야 할 것이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주교님의 그 당부를 가슴속에 깊이 담아 늘 기도하고 세상 속에서도 거룩해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 **50주년 기념미사를 계기로 마산평협이 아주 특별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마산평협은 50주년 기념미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10일 평신도 주일까지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사랑의 돼지저금통’ 키우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기념미사 중에 마산·진주·창원·거제 4개 지구 회장에게 자선 돼지 저금통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도움을 요청했지요. 먼저 교구 평협 창립 50주년의 뜻 깊은 날을 맞아 지난 50년간 봉사해주신 많은 선배 평협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교구 내 본당 및 단체들과 친교를 이루면서 교회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평협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마음이 우리 마산 평신도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사랑의 돼지저

금통 키우기 운동으로 모은 4천1백여 만원의 성금을 교구장 주교님께 전달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에 본당의 교구 납부금 일시 면제

❖ **‘마산교구 평신도들은 무슨 일이건 뚝뚝 뚫쳐 기쁘게 해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연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큰 고통을 겪었는데 저희도 처음 당하는 비상상황이었습니다. 마산평협도 제가 회장을 맡고 나서 상반기에 워크숍과 엠마우스 행사도 계획하고 상임위원 전반기 연수를 준비했는데 미사는 물론 각종 회합과 단체모임을 갖지 않기로 하다 보니 워크숍과 엠마우스도 부득이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임위원 전반기 연수도 어떻게 치러야 할지 지금으로서는 방향 설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하반기 연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적 토대로 우리 평신도들이 꼭 알아야 할 ‘공동 합의성(synodalitas)’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꼭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당 회장단과 각 단체 회장단을 모시고 충실한 내용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셨군요!**

전국의 교구가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거의 두

달 동안 공동체 미사가 중단되면서 우리 평신도들은 성체도 영하지 못하고 고해성사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신도들의 신앙생활이 이러할진대 본당은 더 힘들었지요. 마산교구 73개 본당 모두가 신자들의 발길이 끊겨서 큰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아시고 배기현 주교님의 배려로 지난 4월 3일 마산교구 임시 사제평의회가 열렸습니다. 본당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본당에서 교구에 내는 납부금을 일시 면제해주셨습니다. 당시 그 결정을 할 때 평신도 대표 15명도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내도록 해주셨지요. 어려움을 겪던 본당들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산교구 사제단의 배려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구 내 이주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사제단에서 성금을 거두어 이주민 사목담당 신부님께 전달하셨습니다. 저희 평신도들도 이런 사제들의 이웃사랑을 더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올해 마산평협이 준비하는 사업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나눔을 통한 사랑실천의 복음화 활동과 환경 살리기 생활화를 중요한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통한 행복한 삶 살기를 실천하

는 방안으로 마산평협이 매년 시상하고 있는 '복음화 대상'의 봉사상 부문에 지난해보다 조금 더 비중을 두어 시상하고 후보자 추천도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웃에 봉사하며 사는 분들의 사례를 교구 신자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 살리기 생활화도 중요한 사업인데, 2년 전 공부했던 교황님의 '찬미 받으소서' 회칙을 올해 좀 더 깊이 있는 연수로 계획해서 우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방안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올해는 교구장 주교님과 교구의 숙원 사업인 마산교구청 신축 사업에도 힘을 보탬 예정입니다.

마산교구청 신축에 자발적 봉헌으로 힘 보태

❖ 마산교구청 신축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평협에서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하신다고요.

네. 교구청 신축이전 사업을 위해 우리 평신도들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애초 사순 1주일부터 모금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습니다. 마산평협에서는 지난해 특별 적립금으로 1천만원을 적립했는데 올해 2차로 1천만원을

적립해서 모두 2천만원을 봉헌하려고 합니다. 본당별로 봉헌금을 배정하는 방안보다는 각 가정에서 가족 간에 기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봉헌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 마산평협은 숨은 그리스도인들을 발굴하기 위해 해마다 '복음화대상'을 시상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선교대상, 회두대상, 봉사상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지난해 봉사상을 받은 분의 아름다운 사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 봉사상 수상자는 이계운 사도요한입니다. 2000년에 군대에서 영세를 받고 대부의 권유로 레지오에 입단해서 처음으로 성심원 봉사를 가면서 봉사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2001년에 아주 우연한 기회에 경남 창녕의 나자렛 예수 수녀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자매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곳일들이 많은 것을 보고 도와드리기로 마음먹고 정기적으로 수녀회를 방문하여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태풍 매미의 피해로 경남 고성에 있는 성심 피정의 집을 방문했다가 또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진해 덕산본당 신자로 활동하면서는 레지오

단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봉사가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레지오 단원들을 늘리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레지오를 분단해 확장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에 마산 합포구 진동면에 '하느님의 딸'이라는 공동체가 새로 생겼는데 여기에 봉사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지금까지도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저런 사연으로 수녀생활을 하다 환속하여 일반인으로 지내고 분들이 모여 사시는데 건강상태나 생활환경이 열악

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작은 정성과 봉사가 뒤따르면서 5년 전에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되어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봉사한 숨은 사마리아인 찾아 시상

❖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가 생활이 되어 이웃사랑을 실천한 감동적인 사례군요.

그렇습니다. 기한을 정해서 잠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장 어려운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니 충분히 우리 평신도들이 본받을 만한 사례입니다.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자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분에게 봉사상을 드리게 되어 평협 봉사자들도 배우는 바가 많았습니다. 이분은 지금 본당에서 꼬미씨움 부단장을 하고 계신데, 20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드러나지 않게 봉사하신 분이어서 저희가 지난해 모셔서 평협 50주년 기념미사 때 시상했습니다.

❖ 회장님께서도 창원 반송성당과 사람동성당 회장을 지내시는 등 열심히 봉사해 오신 것으로 압니다. 회장님께서 신앙을 가지게 된 사연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연이 없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을 따라 성당에 다녔어요, 유아세례를 대전 대흥동성당에서 받았습니다. 어릴 적 명절이면 주교관에 가서 주교님께 인사드리곤 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대흥동성당에서 학창시절도 보냈지요. 그런데 사회에 나오면서 그만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고 냉담을 하게 됐어요. 결혼 후에 아내가 신앙을 가지면서 창원의 반송성당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이뤄지면서 본당 재건축에 참여



▲ 마산평협 정기총회 장면



▲ 정기총회 및 복음화대상 시상식에서 인사말하는 백균철 바오로 회장



▲ 복음화대상(봉사상 이계운 사도요한)

하게 되었고 봉사직도 계속 맡았지요. 반송성당에서 사람동성당으로 분가하면서 사람동성당 건축위원장을 맡아서 새 성전을 봉헌하는 일에 작게나마 힘을 보탬했습니다. 저는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 마산평협 총회장을 맡기 직전에 마산평협 수석 부회장으로 활동하셨지요. 평협 조직에는 어떻게 몸담게 되셨는지요?

본당에서 봉사하면서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마산평협 회장을 지낸 안상



복음화대상 수상자들



▲ 그라츠교구 신학교 중앙정원에서

덕 회장님의 권유로 평협 조직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2016년과 2018년에 마산교구의 자매교구인 오스트리아 그라츠 세카우교구(그라츠교구)의 교구설정 800주년 기념행사에 다녀오면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본당에서 봉사만 하다가 평협 조직에서 활동을 하면서 좀 더 넓은 의미의 신앙을 갖게 되었고 또 거기에 맞는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할 일이지요.

❖ 마산교구는 자매교구인 오스트리아 그라츠교구와 오랜 세월 교류를 이어온 것으로 압니다.

마산교구와 그라츠교구는 1971년 10월 15일 결연을 한 이래 49년의 영적 유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매교구의 날인 6월 11일과 가까운 주일에는 서로의 교구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2018년 6월에 마산교구는 그라츠교구 설정 800주년 축하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6월 24일에 슈타트파크(Stadtpark)에서 봉헌된 그라츠교구 설정 800주년 기념미사가 기억에 생생합니다. 배기현 주교님과 교구 평신도들로 구성된 순례단이 차례해 기쁨을 함께 나눴는데 그때 저도 현장에 있었지요. 그날 그라츠교구장 빌헬름 크라우트바셀 주교님의 강론 말씀이 생각납니다. “살아있는 교회로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웃에게 전하는 선교자이며 증거자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신도라면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말씀이잖아요. 배기현 주교님도 “그라츠교구는 우리 교구에 착한 사마리아인이었다. 마산교구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사마리아인이 되어줄 것”이라고 깊이 호응해주셨고요. 그라츠 시내 곳곳에서 축하행사도 준비해주셔서 잊지 못할 귀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빈첸시오 회원으로 활동해

❖ 회장님도 세상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착한 사마리아인에 못지않은 삶을 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본당에서 20년 넘게 빈첸시오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고 도움을 주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하는 일도 평범합니다. 30년째 9명의 직원들과 함께 조그마한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알콩달콩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 마산평협 총회장이라는 큰 봉사직을 맡고 계신데, 봉사하며 살아가는 기쁨도 크실 것 같아요.

봉사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지요. 회장으로서는 저의 뜻을 내세우기보다는 충분히 소통해서 의견을 모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웃들에게 적극 다가가고 더불어 살아가도록 함께 격려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자 개개인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여정 안에서 늘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 평신도가 할 수 있는 복음화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자인 저도 그 길에 함께하는 것이고요. 감사합니다. 

만남

수도회 탐방

주님 손안의 연장 - 예수성심시녀회

글 서희정 마리아
사진 예수성심시녀회 제공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반짝 다가왔다 깜빡 사라질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좀처럼 물러서지 않네요. ‘코로나19(COVID-19)’가 지나면 찾아가려던 수도회 탐방은 결국, 온라인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수도회에 혹여 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였는데, 대구광역시에 총원이 있는 수도회에서는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긴장 속에서 자칫 불신과 미움으로 번질 수 있었던 시간이 배려와 연대로 이어지고 있음에 감사하는 요즈음입니다. 그럼에도 ‘탐방’이란 이름이 무색해질까, 끝까지 놓지 못했던 미련은 ‘예수성심시녀회’를 마음으로 탐방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놓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는 시녀

‘수녀회’가 아니고 ‘시녀회’였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걸까, 오타인가 싶었지만 틀림없는 ‘시녀회’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수도회 이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글자로 이루어진 모든 것에 힘이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참으로 그랬습니다. 수도회의 영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이름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섬기고 있었습



니다. 간호사 수녀님은 선별진료소에 지원하여 봉사했습니다. 수도회에서 설립한 포항성모병원 은 앞장서서 사회에 필요한 지원을 했습니다. 긴 시간, 집중하여 환자를 돌보는 보건소 의료진과 직원에게는 저녁 도시락을 만들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진 팬데믹 (pandemic·세계적 유행)인 만큼 수도회가 활동하고 있는 유럽(이탈리아, 프랑스), 아시아(대만,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라틴아메리카(볼리비아)에서도 ‘준비된 시녀’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특히, 얼마 전(3월12일) 필리핀 마닐라 수녀원 바로 옆에 있는 무허가 주택 동네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무려 236가구가 전 재산을 잃고 그야말

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 때, 전 세계에 ‘예수성심시녀회’ 수녀님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나누었습니다. 가난 속에서 맞이한 코로나19에 화재까지 이중(二重), 삼중고(三重苦)를 겪는 이웃을 향한 수녀님의 마음은 국경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신을 내어놓는 시녀. 쓰이고 잊혀짐에 마음 쓰는 것이 아니라 쓰일 수 있음에 기뻐하는 수도회의 영성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수도회의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파리의 방전교회 소속이었던 루이 델랑드(Louis Deslandes, 한국명:남대영) 신부님이 두 달간의 긴 여정을 거쳐 부산항에 도착한 그 시기는 1923년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신부님은 10여 년간, 본당 사목을 하



▲ 삼덕당 여섯 정녀



▲ 송정

시다 1935년에 여섯 명의 불씨를 만났습니다. 하느님께 온 생을 바치기로 한 여섯 명의 동정녀와 함께 영천군 화산면 용평리에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의 이름은 삼덕당(三德堂). 신(信), 망(望), 애(愛), 삼덕(三德)이 머무르는 이곳이 바로, 지금의 ‘예수성심시녀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둠뿐이었던 시간 속에서도 델랑드 신부님과 여섯 명의 동정녀는 병든 할머니와 두 명의 어린 고아와 함께 생활하며 ‘주님 손안의 연장’이 되어 빛을 전했습니다. 광복을 맞이한 후에도 한국전쟁과 가난으로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빛을 빚어내는 일이 수녀님의 생활이었습니다. 특히, 나병 환자를 위한 무료진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어둠의 시련에도 언제나 그랬듯 빛을 만들어 가고 있으셨던 거지요.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함께하는 일은 새로운 게 없는 수도회 ‘생활(生活)’ 자체였습니다. 주인이 쓰시는 대로 쓰이는 일이 수도회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마태 20,28)

예수성심시녀회 수녀님께서 현재 수도원 정원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푸릇푸릇 초록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님이 빛으신 온갖 생명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

꼈던 모든 것이 다시 그리워졌습니다.

많은 분이 그러셨겠지만, 저 역시 올해 사순시기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사순시기를 보냈다고 할까요. 지금까지 몇 번의 사순시기를, 몇 번의 부활을 맞이했을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사순시기인 걸 깜빡 잊기도 하고, 금식(禁食)이고 금육(禁肉)이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시간도 없이 체크 리스트 하나로 지나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했다는데 의의를 두며 다시 찾아올 사순시기이고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간과 사람 속에서 떨어져 조용히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는 사순시기를 보냈습니다. 당연했던 미사를 드릴 수 없어 모니터를 바라보며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를 외치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아멘’이라 답하고 ‘신령성체기도’를 바치면서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모시기를 바랐는지 모릅니다. 며칠간 씻지 않은 꿈꿨던 마음처럼 고해성사를 드리고 싶어 십자가상을 붙잡고 죄를 고하기도 하고 말이지요. 그런 사순시기와 부활시기를 보내고 난 이후여서인지, 수도회 영성의 바탕인 ‘예수성심’이 진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성심(聖心). 죄가 없으



나눔



▲ 양성기



▲ 요한바오로 2세 어린이집



▲ 기도



신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모든 수난 고통을 감내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의 기쁨을 쏟아 부어주신 성심(聖心). 그 성심을 모시는 시녀들이 바로 ‘예수성심시녀회’였습니다.

수도회는 대구와 서울 두 개의 관구에서 본당 선교, 사회 복지, 의료, 유아 교육, 해외 선교, 피정의 집 등 예수성심이 머무는 곳에는 어디든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안에 머무르겠지요. 예수성심이 향하는 곳이 늘 그렇듯 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성심’ 하면 가시관에 둘러싸인 빨간 하트 모양의 심장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어렸을 때는 그 가시관을 벗겨드리고 싶어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커서는 오히려 깊이 있게 바라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듯하고요. 6월이 ‘예수성심성월’이라고 해도 그저 성월 기도를 드릴 뿐 어느 날처럼 보냈습니다. 미사가 재개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감사함을 잊어가고 있는 저를 본다면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수성심시녀회’ 수녀님처럼 제 마음 둘 곳을 곰곰이 묵상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주님 손안의 연장으로 잘 쓰이고 있는지도 함께 말입니다.

예수성심,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아멘. 

김수환 추기경 유물 소개 1

유서(Last Will and Testament, 遺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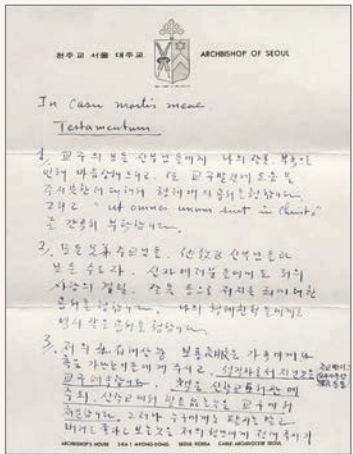
글·사진
송란희 편집위원

이번호부터 『김수환 추기경 유물 자료집』에 수록된 추기경님의 손때 묻은 유품을 소개합니다. 추기경님의 유품은 개인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넘어 사회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추기경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신앙과 삶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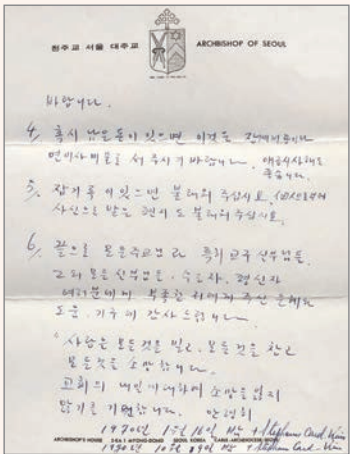
지난 2월 『김수환 추기경 유물 자료집』이 출간되었다. 서울대교구 설정 200주년(1831~2031)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기획한 역대 교구장 유물자료집 가운데 첫 번째이다. 그때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것은 김수환 추기경님이 남긴 친필 유서였다. 추기경님은 죽음 혹은 장기간 부재를 대비하여 유서를 작성했다. 총 3통의 유서는 그동안 서울대교구 문서고에서 소장되어 있었고 유물 자료집에 처음 소개되었다.

성경에도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자의 죽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유언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야 유효한 것으로, 유언자가 살아 있을 때에는 효력이 없습니다.”(히브 9,17)라고 했다. 유언, 즉 유서는 죽음이 확인되고서야 그 가치가 생기는 글이다. 흔히 ‘죽음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며,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산 세월이나 처한 환경에 따라 유서를 대하는 감도(感度)가 다르며 유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차이도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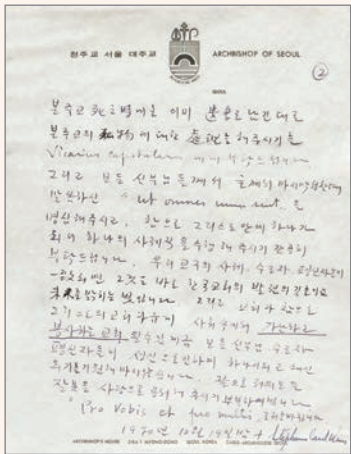
세상이 김 추기경님의 유서에 주목하고 감동하는 이유는 그분의 ‘실천하는 삶’을 알기 때문이다. 추기경님의 주교품 성구는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였다. 추기경님은 유서에 자신의 삶이 그러지 못했음을 동료 신부, 수도자, 평신도에게 용서를 청했다. 그리고 “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답게 사회 속에서 가난하고



▲ 1



▲ 2



▲ 3

봉사하는 교회될 수 있게끔 모든 신부님, 수도자, 평신자들이 성신으로 인하여 하나되고 쇄신되기를 기원해 하지않습니다.”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유서를 읽다 보니 한 구절이 마음에 박힌다. “……버려도 좋다고 보는 것은 저의 형님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기경님의 형님 김동한(가롤로) 신부님은 1983년 9월 28일 추기경님이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참석차 로마를 방문하신 중에 지병이 악화되어 갑자기 돌아가셨다. 뒤를 부탁했으나 오히려 추기경님이 형님의 묘지 앞에 서고 말했다. 죽음의 순서 없음을 다시 깨닫는다.

추기경님은 유서 3통을 가로 20.2×세로 26.3cm 서울대교구 대주교 사무용지에 썼다. 유서를 쓴 때는 1970년 1월 16일 밤, 1970년 10월 19일 밤, 1971년 2월 21일 밤이다. 유서는 모두 반듯하게 세 번 접어서 봉투 안에 넣었다. 봉투에는 “부 주교님, 본 주교의 신상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위해…… 그리고 교구 사목에 있어서 헌신적으로 일해주신 부 주교님과 모든 신부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적었다.

In casu mortis meae[사망 시]
Testamentum[유서]

1. 교구의 모든 신부님들에게 나의 잘못, 부족으로 인해 마음 상해 드리고 또 교구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 데 대해서 형제애의 용서를 청합니다. 그리고 “ut omnes unum sint”[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요한 17,21]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모든 형제 주교님들 타 교구 신부님들과 모든 수호자 신자 여러분에게도 저의 사랑의 결핍, 잘못 등으로 저지른 죄에 대한 용서를 청합니다. 나의 형제 친척들에게도 역시 같은 용서를 청합니다.
3. 저의 사유 재산 중 보통 의복은 가족에게나 혹은 가난한 이들에게 주시고 성직자로서 지닌 것은 (주교반지, 십자가, 목장, 제의 등등) 교구에 속합니다. 책은 신학교 도서관에 주되 신학교에서 필요 없는 것은 교구에서 처분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팔지 말고 버려도 좋다고 보는 것은 저의 형님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4. 혹시 남은 돈이 있으면 이것은 장례비용이나

연미사 예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애공시사해도 좋습니다.

5. 잡기록이 있으면 불태워주십시오. 개인으로부터 사신으로 받은 편지도 불태워주십시오.
6. 끝으로 모든 주교님과 특히 교구 신부님들 그 외 모든 신부님들, 수도자, 평신자 여러분에게 부족한 저에게 주신 은혜와 도움, 기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소망합니다. 교회의 내일에 대하여 소망을 잃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1970년 1월 16일 밤
† 스테파노 김 추기경

1970년 10월 19일 밤
† 스테파노 김 추기경

본 주교의 신상에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장기 부재 시 다음 것을 결정된 것으로 말합니다.

1. 이미 선출된 부주교 김철규 신부님과 상서국장 김몽은 신부님, 교구 경리 최광연 신부님을 당선된 직책에 임명합니다.
2. 그 외 교구 평의회 대표로 선출된 분 또는 선출된 분을 교구 평의회원으로 인준하고 또한 임명합니다.
3. 교구의 모든 사목권을 부주교에게 위임합니다.

사망 시

1. 상기 교구 평의회는 동시에 Coetus consultorum[참사회]을 이미 겸직한다고 발표했는 바 있으니 이분들을 Vicarius capitularis[교구장 직무대행]를 빠른 시일 내에 선출해야 할 것

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법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본 주교 사망 시에는 이미 유서로 남긴 대로 본 주교의 사물에 대한 처리를 해주시기를 Vicarius capitularis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신부님들께서 주(主)께서 마지막 성찬 때 말씀하신 “ut omnes unum sint in Christo”를 명심해 주시고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의 사제직을 수행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구의 사제, 수도자, 평신자들이 일치되면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의 발전의 길들이요, 미래를 밝히는 빛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답게 사회 속에서 가난하고 봉사하는 교회될 수 있게끔 모든 신부님, 수도자, 평신자들이 성신으로 인하여 하나되고 쇄신되기를 기원해 하지않습니다. 끝으로 저의 모든 잘못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 부복하여 빕니다.

“Pro vobis et pro multis”[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글귀를 바칩니다.

1970년 10월 19일 밤
† 스테파노 김 추기경

본 주교의 신상에 불행한 사고로 인한 변화 즉 장기부재 또는 죽음이 있을 때에는 이미 전에 남긴 본인의 뜻을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기부재 시에는 부주교님이 당연히 교구장을 대신합니다.
2. 사망 시에는 Coetus consultorum이 즉시 Vicarius capitularis를 선출할 줄 믿고, 그때에는 Vicarius capitularis에게 저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

1971년 2월 21일 밤
† 스테파노 김 추기경

Pro vobis et pro multis

저는 이 말씀을 주교직(司祭職)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뜻뎌이고 현실의 생활은 이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깊이 현존하시는 가난한 사람들, 우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등 모든 불우한 사람 속에 저는 있지 못했습니다.

임종의 고통(Agonia)만이라도 이 모든 형제들을 위해 바칠 수 있기를 기도해 하지않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의 이 사랑의 부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안녕히

† 스테파노 김 추기경
1971년 2월 21일 밤

올해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선종 11주기가자 생전에 아름다운 종교간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법정 스님의 열반 10주기가이기도 하다. 법정 스님도 1971년 3월에 미리 유서를 적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죽음 쪽에서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죽어 오고 있다는 것임을 상기할 때, 사는 일은 곧 죽는 일이며, 생과 사는 결코 절연된 것이 아니다. 죽음이 언제 어디서 나를 부를지라도 ‘네’ 하고 선뜻 털고 일어설 준비만은 되어있어야 할 것이다. ...나의 유서는 남기는 글이기보다 지금 살고 있는 ‘생의 백서(白書)’가 되어야 한다.”

추기경님의 유언을 다시 읽어보려는 것은 법정 스님의 말처럼 ‘생의 백서’로 삼아 우리의 삶을 성찰하기 위해서이다. 추기경님은 유서에 “저

는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를 주교직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뜻뎌이고 현실의 생활은 이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깊이 현존하시는 가난한 사람들, 우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등 모든 불우한 사람 속에 저는 있지 못했습니다. 임종의 고통만이라도 이 모든 형제들을 위해 바칠 수 있기를 기도해 하지않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의 이 사랑의 부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안녕히.”라고 적었다. 추기경님이 바라는 ‘안녕’은 나만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추기경님의 당부대로 소외된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를 가져가는 것이며 함께 복음을 사는 것이 우리의 ‘안녕’이다. 사랑해야 할 일들이 넘쳐나는 세상 아닌가. 

근·현대 신앙의 증인들 2

콜리어 신부와 소양로 성당

글·정리
김주완 편집위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순교한 한국 교회의 근·현대 신앙의 증인에 대한 시복시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신앙의 증거자”인 이분들 가운데에는 어쩌면 살아생전에 직접 뵈 독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흥식(라자로) 주교님의 바람대로 “특별히 이분들이 하늘에서 우리 교회와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 빌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선교사가 되다

아일랜드 동부 해안가의 소박한 어촌 마을 클로거헤드(Clogherhead)에서 1913년에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6월 22일 ‘안토니오’라는 세례명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콜리어(A. Collier)입니다. 이듬해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은 그가 너무 어렸기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않았겠지만, 1918년 종전 후 영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 북아일랜드와의 분쟁 등 전쟁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



소양로 성당



▲ 콜리어 신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메이누스(Maynooth)의 성 패트릭대학에 진학한 그는 선교에 뜻을 품고 나반(Navan)의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신학교에서 공부한 다음 1938년 12월 21일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는 아일랜드의 갤빈(E. Galvin) 신부가 1916년에 창설한 선교 단체입니다. 중국에서 사목하면서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갤빈 신부는 아일랜드로 돌아와 성 패트릭대학 교수 블로윅(J. Blowick) 신부와 함께 골롬반회를 창설하고, 중국을 시작으로 여러 선교 지역에 회원들을 파견하였습니다. 한국에 진출한 것은 1933년 10월 29일입니다. 제1진으로 도착한 선교사 10명은 목포 산정동(옛 성 골롬반 병원 자리)에 본부를 마련하고 전라도와 제주도 서쪽의 선교를 맡았습니다. 그 후 1937년 4월 13일 대구 대목구에서 광주 지목구가 분리되면서 골롬반회가 사목권을 위임받았고, 1939년 4월 25일에는 경성 대목구에서 춘천 지목구가 분리되면서 강원도 지역도 선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골롬반회 선교사가 된 콜리어 신부는 수품 이듬해인 1939년 신부 2명과 함께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어 12월 16일 서울에 도착한 뒤 18일에 춘천으로 왔습니다. 이어 강릉(현 임당동) 본당 보좌로 낮은 땅에서 사목을 시작하였고, 횡성 본당 보좌로 옮겨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1941년 12월 8일 일제가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켰고, 아일랜드가 일본의 적성국가로 취급되면서 콜리어 신부도 적성 국가 출신이라 하여 체포되었습니다. 강릉과 춘천에 감금되었다가 1942년부터는 춘천에서 연금 생활을 계속하였지

요.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으로 한국에 광복이 찾아오자 연금에서 해제가 된 콜리어 신부는 횡성 본당 제4대 주임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의 첫 순교자가 되다

광복 이후 춘천 지역에 신자수가 늘어나자 춘천교구장 퀴란(T. Quinlan, 具仁蘭) 몬시뇰은 1950년 1월 5일 춘천(현 죽림동) 본당에서 소양로(昭陽路) 본당을 분리·설립하고 콜리어 신부를 초대 주임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신설 본당의 초대 주임으로 부임하게 된 콜리어 신부는 비록 신자수가 약 250명밖에 안 되고 성당과 사제관으로 개조한 한옥집 한 채뿐이었지만, 변듯한 본당으로 발전시켜 나갈 각오를 다졌던 것 같습니다. 곧바로 성당을 지을 계획으로 자재를 모으고 있었고, 성당 부지까지 점찍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의욕적으로 사목 활동을 펼쳤지만 그의 꿈은 다 펼쳐 보이기도 전인, 반년도 채 안 된 6월 25일 주일 새벽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퀴란 몬시뇰을 찾아간 콜리어 신부는 오후 늦게 다시 성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북한군의 서울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27일 새벽 북한군에 의해 춘천 일부가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몬시뇰과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콜리어 신부는 그의 복사 김경호(가브리엘)와 함께 춘천 성당으로 가기 위해 성당을 나섰습니다.

많은 북한군이 우체국 바깥에 주둔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콜리어 신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정체를 밝히라고 하였습니다. 천주교 신부이고 한국에서 신앙 전파만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국 사람인지도 물어봤는데, 자신은 아일랜드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장교가 다가와서 주머니를 뒤져 시계, 목주, 돈과 소지품을 꺼내고 나서 한국에서 진짜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사실대로 털어놓지 않으면 총살해 버리겠다고 위

협했습니다. 콜리어 신부는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브리엘도 같은 추궁에 자신은 신부님을 도와드리고 있을 뿐 어떤 정치적 활동에도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던 장교는 손을 등 뒤로 포박하게 한 다음 두 사람을 같이 묶도록 명령했습니다. 밧줄로 함께 묶이자 콜리어 신부는 “가브리엘, 자네는 처자식이 있으니 꼭 살아야 하네. 저들이 총을 쏘기 시작하면 재빨리 쓰러지게. 내가 쓰러지면서 자네를 덮치겠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0분쯤 끌려가다가 소양강변에 이르자 장교는 또다시 춘천에서의 그들의 위치와 이제껏 해온 특수한 군사 임무 및 정치 임무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이제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전과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장교는 앞으로 가라고 명령한 뒤 몇 발자국 걷지 않았을 때 뒤에서 총을 쏘았습니다. 총을 맞고 콜리어 신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북한군 중 한 명이 “더 쏘까?” 하

자, 다른 한 명이 “죽은 것 같은데, 총알 아까운데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어깨와 목에 총알이 관통했으나 신부가 총에 맞으면서 그를 끌어안았기 때문에 심한 총상만 입고 살아남았습니다. 쓰러지면서 땅바닥으로 가브리엘을 끌어당겼던 것입니다. 그날은 밤새도록 비가 내렸습니다. 손이 함께 묶였던 가브리엘이 정신을 차려보니 손을 뻗 수가 없을 정도로 통통 부어 있었습니다. 힘겹게 밧줄을 풀고 북한군을 피해 산을 넘어 돌아온 그는 콜리어 신부의 순교 사실을 생생히 증언해 주었습니다. 콜리어 신부의 유해는 1951년 10월 9일 가브리엘의 증언에 따라 유엔군에 의해 발굴되어 춘천 성당 뒤뜰에 안장되었습니다.

소양로에 콜리어 신부 기념 성당이 세워지다

1953년 7월 한국전쟁이 휴전되었지만 도시와 농촌 가릴 것 없이 쑥대밭이 되었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나 교량도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춘천교구에서도 성당 재건에 힘쓰는 한편 이재민과



▲ 콜리어 신부 묘비



▲ 소양로 성당



▲ 소양로 성당



▲ 소양로 성당 원경(문화재청)

실업자들을 돕기 위해 원조 물자를 배급하는 등 피해 복구에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한편 쿤란 교구장은 한국전쟁 중에 순교한 콜리어 신부와 매긴(J. Maginn, 陳) 신부, 레일리(P. Reilly, 羅) 신부를 기리기 위해 소양로, 삼척(현 성내동), 묵호에 기념 성당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양로에도 제3대 주임 벅클리(J. Buckley, 夫) 신부에 의해 1956년 9월 3일 '소양로 성 파트

리치오 성당'이 봉헌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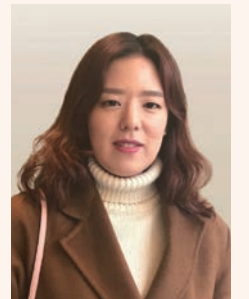
소양로 성당은 춘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봉의산(鳳巖山)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남하하는 북한군을 저지한 격전지이기도 했던 봉의산은 상서로운 봉황이 나래를 펴고 위익(威儀)을 갖춘 모습을 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성당 입구에 들어서면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반원형 구조의 아담한 성당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성당 뒤쪽을 돌아 들어가면 영락없는 굴 반의 반쪽입니다. 벅클리 신부가 이런 독특한 성당을 지은 것은 머나먼 타국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콜리어 신부의 살신성인 정신을 영원히 남기고, 한국전쟁의 아픈 사연을 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붕 위의 예수 성심상이 두 팔을 벌려 반겨주는 소양로 성당은 전통적인 중세풍 성당 건축 양식에서 벗어나 근대적 건축 양식을 도입한 국내 최초의 성당으로 평가받아 2005년 4월 15일 등록문화재 제16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기둥이 없는 반원형 성당 내부는 중앙 제단을 중심으로 신자석이 부채꼴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신자석과 제단이 가까워 더욱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제대 십자가 위의 원형창과 주위의 반원형과 아치형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은은한 채광은 자연스럽게 콜리어 신부의 삶과 신앙을 묵상으로 이끌어 주고도 남습니다. 37세라는 젊은 나이에 사제가 된 지 12년밖에 안 된 콜리어 신부의 순교가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아 더욱 아리게 가슴을 파고듭니다. 

나눔

나의 신앙 선조

자녀를 사랑하는 법



김혜원 프란치스카 / 서울대교구 신도림동 성당

“아기집이 보이네요. 4주 3일 됐습니다.” 의사의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많은 이의 축복 속에 혼인성사를 받고 꿈결 같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 퇴근 후 친정이 아닌 신혼집으로 향하는 길이 낯설고, 남편 보다는 남자친구라는 호칭이 여전히 튀어나왔죠. 그런데 아기라니요! 저는 눈만 꿈벅거렸습니다.

“엽산은 먹고 계시죠? 남은 건 마저 복용하시면 되고 보건소 방문하면 새로 받으실 수 있어요. 계속 드세요.” “엽산이요? 안 먹고 있는데…….” 제 목소리는 점점 목구멍으로 기어들어 갔습니다. 혹 아기 건강에 중요한 걸 놓친 건 아닐까 불안함에 휩싸였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말투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태아 발달에 필요하니 지금부터라도 드시면 돼요. 대개 임신 전에 부부가 함께 복용하며 아기를 기다리기도 하는데 이젠 남편분은 드시지 않아도 되고요.”

산부인과를 나서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임신했대. 우리한테 허니문베이비가 생겼네.” 잠시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저만큼이나 그도 얼떨떨한 눈치였습니다. 남편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일지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요. 새 생명을 보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한편 아직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죠. 몸도 마음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맞이한다는 게 미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결혼 전, ‘가족계획’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참 많이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남자친구도 적지 않은 나이니까 하느님께서 주시기만 하면 얼른 낳아야



혼배 성사

참고 도서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시복 자료집 제1집,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2018.

춘천교구 50년사 편찬위원회, 『춘천교구 50년사』, 1989.

소양로 성 파트리치오 본당사 편찬위원회, 『소양로 성 파트리치오 본당사』, 소양로 성당, 2012.



▲ 부모님의 혼인 갱신식



▲ 세례 성사



▲ 서울 선택 주말 봉사자들과 함께

지요.” 밤마다 성가정을 이루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주변에 저희를 위한 기도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하나 막상 아기가 생기자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하지? 양가 부모님이 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기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문득 예전에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2대 독자인 아버지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얻은 자식이었습니다. 부모님 역시 하느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기다려 온 자식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걱정이 많았답니다. 두 분은 상의 끝에 ‘주님께서 주신 아이니 그분 안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딸로 키우자!’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곤 이런 약속을 맺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은 주일만은 거르지 말자.’

가톨릭 신자라면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지키기 쉬운 일도 아닙니다. 저는 어린 시절 성당에 관해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제 기억 속 미사는 참 지루하기만 했거든요. 몸을 비비 꼬다가 “평화를 빕니다.”라고 인사할 때 가장 신났습니다. 곧 끝난다는 신호 같았거든요. 토요일마다 주일 학교에 가야 해서 친구들 생일 파티에 갈 수 없었고, 가족 여행을 가더라도 근처에 성당이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 헤맸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와 미국 여행을 갔을 때는 가이드에게 물어 차로 1시간이 넘는 한인 성당을 찾아가느라 생고생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집은 너무 유난이야!” 하며 입을 삐죽거리기도 했지만 부모님께서 보여 주신 신앙의 성실함은 제 삶에 신앙이 녹아드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지방에서 근무하시면서도 ‘아버지학

교’ 봉사자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어머니는 신부님, 수녀님의 의로 봉사를 했습니다. 저 역시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보고 자라 그런지 무언가 해야 한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서울 선택 주말과 성서 모임 봉사자로 활동하며 제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주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남동생도 어린이 복사를 거쳐 주일학교 교사와 성서 모임 봉사자로 교회에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제야 조금씩 깨닫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 모두 한마음으로 식사 전 기도를 바칠 때, 첫 손녀를 기다리며 함께 묵주 기도를 바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 임신 사실을 고백하자 누나와 매형이 성가정을 이루며 그 결실인 자녀를 주심사 기도했다는 동생 내외가 있어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7월에 태어날 우리 아기도 주님 안에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딸로 키우면 되겠구나 생각하자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얼마 전 성당에서 태아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입덧이 심해 울렁거리는 속을 부여잡고 창백한 얼굴을 가릴 화장도 하지 못했지만 남편과 저는 깨끗한 옷을 차려 입고 성당 맨 앞자리에 앉아 미사를 드렸습니다. 아기와 우리 가정을 위해 신부님이 안수를 해 주실 땐 가슴이 벅찼고 모든 신자가 아기의 순산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실 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많은 축복 속에 태어날 아기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제 신앙의 모범이 되어 주신 부모님이 제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이콘

이콘 - 두 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이콘

예수님의 이콘



장궁선 예로니모 신부 / 서울대교구 이콘 연구소 소장

예수님을 그린 이콘을 보면 바로 오늘 소개하는 이콘과 같이 주로 반신상이나 간혹 얼굴만 묘사되기도 한다. 이 이콘들은 ‘전능자 그리스도’와 ‘구세주’라는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명확한 구분은 어렵다. 실제로 정교회의 성화 전문가들도 이 두 명칭을 혼용하기도 하고 많은 문헌들도 명확한 구분을 하고 있지 않다.

1. 전능자 그리스도(Christ Pantokrator)

판토크라토르라는 말은 희랍어 Παντός(모두, 전체)와 Κράτος(지위, 상태, 힘)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모든 힘을 가진 자 즉 전능자 그리스도(Almighty)라 번역된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Arianism), 혹은 인성을 부인하는(Monophysitism) 이단과 3세기에 걸친 투쟁의 시기가 이어진 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완벽한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확정하고,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모두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교리를 확립하면서 이 전능자 그리스도 이콘은 이 교리의 상징이 되었다. 그로 인해 성화상 파괴주의자인 레오 3세 황제(717-41)의 집권 시기에는 이 이콘이 파괴의 주된 표적이 되어, 참 하느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의 이 이미지를



▲ 전능자 그리스도팔레르모 팔라티나

보호하던 많은 이들이 박해를 당하고 처형되었지만, 성화상 파괴 논쟁이 종식된 843년까지 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 이단을 대적인 정통신앙의 승리를 나타내는 상징도 되었다. 이 전능자 그리스도 이콘은 많은 경우 성당 중앙의 돔에 왼손에 복음서를 들고 오른 손으로는 축복을 주는 모습으로 커다랗게 그려지는데 그 주위에는 “야훼께서 저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셨다.”(시편 102,19)



▲ 시칠리아 몬레알레 대성당

라는 글귀가 함께 새겨진다. 그리고 때로는 시칠리아의 몬레알레 성당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당의 제단위의 반원형 천장(애플스)에 묘사되기도 했다.

2. 구세주(Our Savior)

이 이미지는 Pantokrator 이콘의 변형으로, 심판자로서의 그리스도의 힘과 권위의 표현이 구원자의 자비로운 얼굴로 완화하며, 그의 눈은 보다 친근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 내신 분도 보는 것이다.”(요한 12,45)

이 이콘은 대개 작은 크기로 지성소 앞 성화벽(iconostasis)이



▲ 구세주, 이스탄불, 성 소피아 대성당

나 개별적 이콘으로 많이 제작되며 예수님이 들고 있는 복음서는 닫혀 있기도 하고 열려 있기도 한데 열려 있는 경우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마태 11, 28-30).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요한 8,12),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 받지 않을 것이다.”(마태 7,1) 등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 중에 선택하여 쓰여 진다.

3. 옥좌에 앉으신 그리스도(Christ Enthroned)

이 옥좌에 앉으신 구세주 그리스도의 형상은 이미 8세기 이전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12-13세기에 카파도키아를 통해 러시아에 유입되었고, 그리스에서 건너간 성화작가이며 수사인 테오판네스와 그의 러시아인 제자 안드레이 루블료프에 이르러 오늘날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정형화된다.

이 주제는 옥좌에 앉아 계시는 야훼를 둘러싸고 날고 있는 스랍들을 본 이사야의 환시(이사 6:1-4)와 네 생물의 형상에 둘러싸여 옥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본 에제키엘의 환시(에제 1,4-28), 그리고 주님 어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음을 본 요한의 환시(묵시 4,2-9) 등의 성서의 구절들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특히 요한 묵시록의 네 생물(천사, 사자, 황소, 독수리)은 교부들에 의해 4복음서 저자의 상징들로 해석되어 왔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둘러싼 세 겹의 후광 중 가장 바깥쪽의 붉은색 사각형 후광의 네 모서리에는 4복음서를 상징화한 네 가지 동물의 형상이 흐릿하게 그려져 있으며, 이 붉은색 후광은 또한 동, 서, 남, 북 4 방향을 나타내고 있어 세상 어디에나 주님이 존재하고 계심과 그분의 빛과 말씀이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안으로 약간 푸른빛이 도는 녹색의 둥근 후광이 다시금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에는 천사들의 희미한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이 천사들은 이사야서 6장 1-2절에 언급된 여섯 개의 날개의 스랍들로 위로 두 개, 아래로 두 개, 그리고 좌, 우로 두 개의 날개로 하늘을 날고 있으며, 그 한가운데에 몸통 없는 얼굴만 그려져 있고, 하늘 높은 곳의 보좌(옥좌) 주위를 날며 하느님을 둘러싸고 모시며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고 외치고 있다. 즉 바로 여기에 묘사된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성한 위엄을 지니신 창조주 하느님 바로 그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천사들이 그려진 둥근 후광 안쪽으로 다시 붉은색 후광이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옥좌를 감싸고 있고, 이 세 겹의 후광 한가운데에 옥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묘사했다. 여기의 두 개의 붉은색 사각형 후광은 겹쳐져 꼭 지점이 8개가 된다. 이는 영원한 미래를 상징하며 이러한 후광은 ‘예수의 거룩한 변모 이콘’에서도 볼 수 있다.



▲ 옥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안드레이 루블료프

그리고 예수님의 발 받침 좌, 우에는 둥근 원형과 작은 날개가 붉은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에제키엘 1장에서 묘사하는 “그분은 하늘 위 불 수레 위에 앉아 계시며 그 아래에 바퀴가 보이며 그 둘레에 눈이 가득 박혀 있었다.”라고 한 부분을 묘사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오른손으로 강복을 주시며, 왼손에는 자신의 무릎에 복음서를 올려 놓고 펼쳐 보이신다. 그 안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을 복음서에서 선택하여 쓸 수 있는데, 요한 7,24의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는 위엄에 가득 찬 말로부터 시대가 지남에 따라 마태 11,28의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는 등의 위로의 말로 변하고 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다

“파리! 다양한 색을 가진 도시!
그리고 진한 핏빛 커피”



김원창 미카엘 / 평화방송여행사

시골에서 자랐던 내게 ‘파리’라는 단어는 우습게도 천장부터 길게 늘어져 있던 끈끈이를 떠올리게 한다. 깜빡이며 파르스름한 빛을 발하던 형광등 근처에 매달린 끈끈이는 웅웅거리며 한여름의 낮잠을 방해하던 파리가 몇 마리 붙어있었고, 가끔은 그런 파리가 붙었다는 생각도 해봤던 것 같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도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하듯, ‘파리’라는 도시는 선망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카페의 벽이든 관광 안내책자이든 에펠탑을 배경으로 한 ‘파리’라는 단어는 전 세계인들에게 한껏 낭만적인 충동을 일게 한다. 비록 프랑스인들이 사랑하는 작가 중 하나인 모파상은 쳐다보는 것조차 거부했고 객관적으로도 다양한 파리의 색채와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철골구조의 에펠탑이지만, 이제는 그 탑이 파리의 상징이 되었다. 그 아이러니도 파리의 색깔 중 하나가 된 것이다.

파리는 작고 화려한 흰색 양산에 화려한 깃털을 달고 한껏 모양을 낸 높은 모자, 긴 드레스에 뽀족한 하이힐을 신고 사뿐거리며 걷는 여자들을 떠올리게 한다. 유리창 너머까지 향기를 뿜어내는 예쁜 색을 가진 향수로 마무리한 그녀들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파리는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아름다우며 사람을 사랑에 빠지게 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그 매력을 수백 권의 책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비롯해 니케 여신의 조각상과 고대 이집트의 화려한 문화를 간직한 루브르 박물관, 12개의 방사형태 길을 가진 파리의 개선문, 센강의 물줄기를 타고 오르내리는 유람선, 길거리 화가에게 자신의 모습을 추억으로 남



▲ 센강 유람선에서

기려는 사람들로 붐비는 몽마르트 언덕,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 하나인 소르본 대학, 그리고 전 세계 수천 개의 같은 이름을 가진 노트르담 성당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 민중의 지지를 받았으나 결국 독재자로 생을 마무리한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는 생 루이 드 앙발리드, 그리고 유명하고 아름다운 회화작품들로 가득한 오르세 박물관까지, 파리의 색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하다. 파리아마로 하루 이틀 만에 그 면모를 다 볼 수 없는 다양한 색채를 가진 도시이다. 물론 많은 한국 여행객들은 여전히 단 하루 만에 이 모든 장소를 해지우듯 방문하고 파리의 모든 색을 체험하려 들기도 한다. 그 짧은 일정에도 샹젤리제 거리의 쇼핑까지 끝내는 괴력의 신공을 가진 이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사실 파리는 우리 생각보다 더더욱 색다르다. 낭만만 가득해 보이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최첨단의 공업기술로 가장 뛰어난 비행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 유럽사회의 목소리를 주도하는 정치적인 힘, 시민의 힘으로 왕을 단두대에 처형했던 콩코드 광장의 역사도 파리의 또다른 면이다. 깊고 차가운 이성의 힘과 폭풍같이 강렬한 감성이 가장 조화롭게 어울리고 있는 도시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인지 민족적 뿌리가 뒤엉켜있고 가장 가깝고도 긴 국경을 맞닿고 있는 독



▲ 파리 개선문



▲ 파리



▲ 파리의 카페에서



▲ 카르투시안 수도자 개인방



▲ 루르드



▲ 라살라트 바실리카

일이라는 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다양한 색채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웬지 흑백이 어울리는 나라라는 생각이 주제넘은 확신이라 할지라도.

가톨릭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는 파리는 또 다른 면을 보여준다. 파리라는 도시에서 프랑스라는 나라로 눈을 넓혀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사실 프랑스는 “교회의 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교회 안에서 큰 역할을 했다. 그 역할은 또다시 다양한 색채를 뽐내는데, 파리를 포함한 프랑스는 헤아릴 수조차 없는 많은 성인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며 가장 많은 성모의 발현이 목격되고 인정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여전히 교회가 가르쳐 왔던 사고가 사회 전반에서 폭 넓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다.

파리 그리고 프랑스를 순례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종교적 사건과 기록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소르본대학가에서 낭만에 취하더라도 그곳에서 배출한 알베르트, 토마스아퀴나스, 보나벤투라를 비롯한 너무도 위대한 성인 학자들의 깊고 진지한 호흡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걷던 퇴역 군인이 ‘부활의 롤랑’ 수사로 살아냈던 시간의 색깔을 목격

하길 바란다. 그는 길거리에 구르는 낙엽 속에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느끼고 가르멜수도원에 들어가 묵묵히 청소와 샌들을 고치는 일을 하며 살았고, 오히려 그 하찮은 일들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결국 ‘특별한 평범함’을 실현해 내었다. 프랑스 남부에서 시작된 클뤼니 수도원의 개혁적 움직임에 마음이 움직이면 좋겠다. 철저한 침묵으로 하느님을 찾는 카르투시안들의 역설적인 역동감을 체감했으면 한다. 노트르담 성당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그곳 그 광장에서 세상과 종교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겪어야 했던 불필요하고 안타까운 성전기사단의 죽음도 기억해보자. 몽마르트 언덕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리는 동시에 그 자리에서 세상을 움직일 7인의 예수회 서약식이 있었음을 기억하자. 지금은 수많은 순례자들로 화려하게 빛나는 루르드의 가장 큰 비밀이, 다름 아닌 베르나데트처럼 보잘것없는 이를 택해서 거룩함이 온 세상에 존재함을 드러내신 그분의 그치없는 사랑임을 알기를 원한다.

파리는 다양한 면모와 더욱 다양한 색채를 가진 도시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별한 색깔이 있다. 그것은 한국의 가톨릭신자들에게 더욱 특별한 색이다. 그 색은 아주 짙은 진홍빛,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에 흐르는 ‘피’의 색깔이다.

파리를 여행하면서 쇼핑을 빼 놓을 수 없다. 그중에서도 백화점은 많은 이들에게 파리만 가질 수 있는 좀 더 특별한 어떤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르 봉 마르세는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백화점이다. 그곳은 겉으로 아주 특별해 보이지는 않지만 쇼윈도를 그냥 지나치는 강심장을 가진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르 봉 마르세를 오른쪽으로 끼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면 빈첸시오 성인과 가타리나 라부레 성녀의 성상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곳이 일명 파리의 기적메달 성당이다. 루르드의 발현 이전에 이미 하느님께서는 이곳에 성모님을 보내시어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신원과 하느님의 자비를 알리셨다. 그러나 그곳이 붉은 피의 색을 가진 곳은 아니다. 기적메달성당을 뒤로하고 작은 책방을 지나 사거리에서 풍기는 향기로운 커피향을 맡는 그 순간 건너편에 “MISSIONS ETRANGERES DE PARIS” (파리외방전교회)라는 현판을 가진 건물을 볼 수 있다. 그 건물에 한발짝 다가서면 파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몇 개의 걸개사진을 볼 수 있다. 아시아인들과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사진 몇 장. 아시아를 대상으로 선교를 전하겠다는 이름 그대로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사진들이다. 아시아에서 온 우리에게 익숙한 사진들 사이로 정면건물은 지하 박물관과 2층 성당을 품고 있다. 그 건물과 우측 안내소와의 오솔길 사이로, 여전히 아시아로 파견되고 있는 신학생들의 못자리 ‘파리외방전교회의 신학교’가 있다.

2층 성당으로 오른다. 정면의 성모상과 함께 하느님과 침묵의 시간을 잠시 보내고 고개를 돌리면 놀랍게도 당시 조선으로 떠나는 네 신부님들의 파견예식이 그려진 그림을 한쪽 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 그림은 근대 올림픽을 시작하는데 공헌했던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의 부친의 그림 인지라 어린 쿠베르탱 남작의 모습도 볼 수 있다.



▲ 파리외방전교회



▲ 파리외방전교회

물론 이 그림의 주인공은 그 어린이가 아니다. 브르트니에르 신부, 볼리의 신부, 위앵 신부 그리고 도리 신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을 가진 이 신부님들이 이 그림의 주인공들이며, 그들이 조선으로 떠나기 전에 있었던 파견예식을 그리고 있다. 이들 모두 누런 조선 땅의 색을 진홍빛으로 바꾸게 되는데, 그들이 이곳 낯선 땅에 숨어들어와 채 1년도 되지 않았던 시점이다.

이야기

인터뷰

포콜라레 운동

인터뷰 : 포콜라레 운동 김미영 아가다 서울본부 여성대표 대담 · 정리: 최태교 편집위원



▲ 파리외방전교회 정원



▲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정원

지하 박물관에서는 더욱 진한 핏빛 색채를 보고 맛볼 수 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의 유물들과 반가운 한글 이름들을 본다. 조선 뿐 아니라 캄보디아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의 유적과 그림들이 있지만, 박물관으로 내려가는 입구에서 커다란 석조탁자에 새겨진 한글 이름들을 마주하면 그 이름들이 마치 이 박물관의 주인처럼 느껴진다. 비록 서로 이름과 생김새가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색의 피를 가졌음을 세상에 알려주었다. 네 신부님들을 포함한 10명의 프랑스 선교사들과 93명의 조선인들의 피는 150여 년 전에 조선의 땅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 103위 성인들의 목록이다.

파리외방전교회는 파리의 다른 건물과 마찬가지로 신학교의 건물 안쪽으로 너른 마당을 가지고 있다. 그곳에서 우리는 조선(지금은 한국교회라고 불리는)교회에서 그 피의 색깔을 기억하고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보낸 석비와 종을 볼 수도 있다. 그 마당은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신부님들이 파견예식을 마치고 정들었던 학교와 고향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묵주를 들고 기도하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약하며 후배 신학생들과 생애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곳이다. 그래서 그 마당은, 그 마지막 인사를 잊지 않으려는 듯, 1년에 한번 그들의 세상 마지막을 떠올리며 빨간 장미를

피워낸다. 파리를 방문하는 한국의 순례자들 모두가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깊은 신앙과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는 빨간 장미를 꼭 보았으면 좋겠다.

파리의 색, 아니 프랑스의 색은 마치 그들의 국기처럼 희고 파랗고 붉다. 파리외방전교회를 나서면 프랑스 국기에 칠해진 우정과 박애를 뜻하는 붉은 색이 웬지 나머지 색깔보다 좀 더 짙어 보이는 건 비단 나뭇잎이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파리외방전교회를 뒤로하고 다시 커피향을 내뿜는 사거리를 지나면서, 조선 땅에서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고 싶었던 음식이 놀랍게도 커피 한잔이라고 말했다는 순교 성인 신부님의 이야기를 기억해 내고는 그 향기에 마냥 취하지는 못한다.

핏빛 커피향을 코로 냄새 맡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곳! 그 작은 사거리는 파리가 가진 여러 가지 색깔 중에 으뜸가는 색을 볼 수 있고, 또 최고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곳이다. 



▲ 창설자 끼아라 루빅

❖ 포콜라레 운동의 출범 계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포콜라레 운동은 1943년 이탈리아 북부 도시 트렌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창시자인 끼아라 루빅(Chiara Lubich, 1920~2008)은 전쟁의 포화속에서 모든 것이 헛됨을 체험하면서 스물세 살의 나이에 하느님께 자신의 온 일생을 전적으

로 봉헌하게 됩니다. 이를 기점으로 포콜라레 운동이 출범하여 오늘날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끼아라 루빅은 철학을 전공하고 있었지만 전쟁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었으므로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의 꿈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자 했던 친구는 약혼자가 전사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고, 예쁜 집을 꾸미고 싶어 했던 친구는 폭격으로 인해 자신의 집이 파괴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허무하고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끼아라 루빅과 친구들은 어떤 폭탄도



포콜라레 친구 주교모임에서 어린 젼들 소개



▲ 포콜라레구역 공동체 모임



▲ 여름 마리아폴리 모임



▲ 여름 마리아폴리에 온가족이 함께

무너뜨릴 수 없는 이상(理想)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느님’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발견하고 일생의 이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하루에 11번이나 방공호로

피신을 해야 할 만큼 무자비한 상황이었고, 늘 죽음에 직면해 있었지만 그들은 폭격을 피해 방공호로 갈 때면 오로지 복음서만을 가지고 갔습니다. 어떻게 하느님을 따를 수 있는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복음서가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끼아라 루빅은 전에도 여러 번 읽었던 말씀들이 새롭게 빛을 발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강하게 밀어줄을 느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끼아라 루빅과 친구들은 하루 종일 보잘것없는 형제들을 찾아가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부상당한 사람들,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주여라, 받을 것이다.”

비록 적지만 가진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모두 내어주었는데 매일 더 많은 물건들이 선물로 들어와 또다시 나누어 주곤 하는 기적 같은 경험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복음 말씀이 진실하며 가치가 있음을 몸소 체험하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말하는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은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몇 달 지나지 않아 500여 명의 사람들이 이들과 함께 복음을 실천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포콜라레(Focolare)는 이탈리아어로 ‘벽난로’를 뜻합니다. 끼아라 루빅과 친구들의 삶을 접한 트렌토 시의 사람들이 가정과 같은 따뜻함을 느끼며, 이들이 사는 집을 ‘포콜라레’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포콜라레 운동을 ‘마리아사업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성모님을 본받아 세상에 영신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를 지향한다는 뜻에서 가톨릭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준을 받은 이름입니다.

초창기 어느 날 폭격을 피해 어두운 지하실에 모여 희미한 촛불 아래에서 복음서를 펼쳤을 때 특별히 눈에 띈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요한 17,21)였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부께 바친 기도로 끼아라 루빅은 이 말씀을 접했을 때 특별한 은총으로, 여기서 말하는 ‘일치’를 위해 자신들이 태어났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치와 친교를 목표로 하는 포콜라레의 영성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가, 현재 180여 개국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69년에 포콜라레 본부가 문을 열었고, 5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평신도와 수도자, 사제, 어린 아이와 청소년, 젊은이, 어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 포콜라레 운동의 조직과 주요 활동에 대하여 소개해 주십시오.

포콜라레 운동은 공동생활을 하는 남녀 봉헌자(포콜라리노)들을 중심으로 하여, 각자 자신의 가정, 직장, 학교, 본당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남녀노소 회원들로 구성됩니다.

특히 젊은이와 청소년, 어린이들을 ‘젠(GEN, New Generation)’이라고 부르며, 이들은 포레들을 위한 일치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활동으로는 새가정운동, 새인류운동, 본당운동 등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류를 한 가족으로 모으는 데 봉사하고자 하는 포콜라레 운동 앞에는 5개의 대화의 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의 대화, 다른 그리스도교인들과의 대화, 이웃 종교인들과의 대화, 다른 신념을 지닌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현대 문화와의 대화 등입니다.(2020년 1월, 이탈리아 트렌토에서 열린 포콜라레 친구 주교들의 세계 대회)

✧ 특히 올해는 창시자이신 끼아라 루빅 탄생 100주년을 맞아 계획하시는 행사나 조만간 있을 행사 중 함께 나누고 싶은 행사가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가톨릭교회는 끼아라 루빅을 20세기의 카리스마적 인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복음적 가치에 기초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보편적 형제애를 전파하고 평화를 건설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2008년 선종 당시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역대 교황들의 생각은 끼아라 루빅의 길잡이였으며, 예언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를 실천한 삶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5년에 시복시성 절차가 시작되었고 작년 11월 교구 차원의 심사가 마무리되어 교황청의 시성성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한국 포콜라레에서는 “100주년: 기념과 만남의 장”이라는 기치 아래, 올 한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이 끼아라 루빅의 삶과 그가 남긴 일치의 영성을 만남으로써, 분열과 투쟁의 사회에서 일치와 화해로 향하는 길을 제시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치의 영성과 그 사회적 영향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공개강좌와 전시회를 비롯하여, 음악회, 북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기되어 금년 하반기에 열릴 예정입니다. 포콜라레 운동의 정신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국영방송 RAI TV에서 끼아라 루빅의 생애를 조명하는 영화를 제작 중입니다.

✧ 포콜라레 활동에 평신도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참여 방법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신도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은 다음과 같이 있으며 포콜라레 홈페이지(<http://www.focolare.or.kr/primaex.ht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성인과 나 시트니



정성운 시트니 / ㈜퍼즐에이아이 부사장

‘생활말씀’ 모임
우리의 사고, 행동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매달 복음 한 구절(‘생활말씀’)을 택하여 묵상하고 실천한 경험담을 함께 나누는 모임이며, 월 1회 남녀노소, 구역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리아폴리(Mariapoli)
연령과 신분,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계층 사람들이 3~4일 동안 함께 모여 복음적 사랑과 일치를 실천하는 여름 모임이며, 시기와 참여는 홈페이지 게재되어 있습니다.

대중운동
대중운동으로는 정치, 경제, 교육, 의료 등 사회 여러 분야에 복음적 가치에 기초한 문화를 펼치며 사회를 혁신시키고자 하는 ‘새인류운동’, 가정 안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부부 사이의 서로 간의 일치를 키우며 혼인성사의 가치가 최대한 드러나도록 노력하는 ‘새가정운동’, 예수님의 유언인 ‘일치’의 정신을 본당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며 신부님과 본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드는 데 협력하는 ‘본당운동’, 일치된 세계를 꿈꾸는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일치를 위한 젊은이 운동’과 ‘Run4 Unity’ 등이 있습니다.

올해 10월에는 매년 열리는 ‘새가정 학교’와 ‘본당대회’가 계획되어 있으며, 가정과 본당의 복음적 삶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각종 영성 서적, 경험담 등이 실린 출판물과 월간 ‘그물’을 통해서도 포콜라레 정신을 만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 대구, 광주에 포콜라레 본부가 있으며, 전국에 약 3,0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평신도께서는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 계획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 포콜라레 본부가 열린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뿌리를 내리며 전국적인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특히 복음에 기초를 둔 대중운동과 각종 대화를 통해 밖으로, 변방으로 나아가 사회 각 분야에 평화와 형제애가 자라나도록 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콜라레 운동 창시자 끼아라 루빅을 통해 하느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일치의 카리스마가 널리 확산되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고, 보다 인간다운 사회, 평화로운 세계의 희망이 되고자 합니다. 

1. 늦깎이 영세
유년기엔 할머니와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고,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최근까지 유물론과 과학에 대한 확신으로 ‘종교는 아편’(Religion is the opium of the people. -Karl Marx)이라는 반(反)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두세 해 전까지 동네 (개신교)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반 신앙적 태도는 벗어 던졌음에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엔 주저했고, 과학과 신앙을 함께 받들 자신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존적 고독, 그리고 끊임없이 대면하는 윤리적 선택 상황들을 과학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생각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 시트니 성인

그러던 차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제가 운영총괄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에 엔젤 투자를 하게 되었고, 지난해 6월 서초평화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미사에 참례를 했습니다. 월요미사 참례 8개월 차에 이르러, 새로운 삶에 대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난 1월 21일 이경상 신부님 집전으로

서초평화빌딩 3층 성당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늦은 나이에 스타트업에 몸을 담고, 또 그 회사에 가톨릭 기관이 엔젤투자를 하고, 덕분에 미사를 참례하고 나아가 영세까지 받는 일련의 과정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교리공부를 하면서, 신앙과 과학 중 어느 한쪽에서만 진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둘 사이에 풀리지 않는 모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창조 이야기는 세상의 기원을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라는 것, 세상과 인간의 존재와 본질, 가치, 사명, 의미와 목적에 관한 질문에 생물학적으로 답할 수는 없다는 점, 그러면서도 신앙은 자연 과학적 지식과 가설에 개방적인 견해를 갖는다는 것을 깨달아 가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한편, 외국계 IT기업에서 첫 사회생활을 할 때, 동료들의 이름들은 영문 이니셜, 가령 저의 경우는 ‘SY’로 불리곤 했는데, 비단 이 ‘SY’뿐 아니라, 대부분의 이니셜 호칭은 많은 이들을 몰개성

한국 포콜라레 본부			
본부	구분	주소	전화번호
서울	남성	(04002) 서울 마포구 동교로 139-9	02-332-1010
	여성	(04607) 서울 중구 다산로 21길 27-9	02-2232-2460
대구	남성	(42261) 대구 수성구 천을로 13	053-523-4822
	여성	(42488) 대구 남구 큰골1길	053-651-2739
광주	여성	(61451)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 70번길 18-4	062-222-2800



▲ 세례성사

적으로 지칭했고,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성운도 SY, 상운도 SY, 상열도 SY. 그래서 고민 끝에 SY로 시작하는 영문이름을 찾기에 이르렀고, 영미권 이름 빈도 순위 400위 안에 드는 Sydney라는 이름을 골라 자칭(自稱)하고 다녔는데, 작명할 때 이 이름이 성인의 이름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훌쩍 지나서 세례 받기로 결정하니, 세례명도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저의 영문 필명 Sydney의 유래인 시트니(Sithney)를 후보성인록에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2. 성 시트니(Saint Sithney)

미친개들의 수호성인(the patron saint of mad dogs)으로 알려져 있는데, 8월 4일이 축일이며, 활동연대가 서기 529년경으로 알려진 시트니 주교에 대한 자료는 매우 빈약합니다. 가톨릭 성인록에서 인용해 봅니다.

영국 출신으로 브르타뉴(Bretagne) 지방으로 이주한 성 시트니는 그곳에서 수도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전설은 세이길(Saighir)의 주교 성키아란(Ciaran, 3월 5일)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각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브르타뉴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어느 날 하느님께서 성 시트니에게 나타나서 젊은 소녀들의 보호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성인은 다른 일을 주시기를 간청하

었는데, 왜냐하면 젊은 소녀들이 남편을 구하도록 도와주는 등 수많은 그들의 요구들 때문에 결코 평화스러운 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자보다는 차라리 미친개를 돌보겠다고 아뢰었고, 그날 이후 성 시트니의 우물에서 병들고 미친개들을 낫게 하는 물이 나와 그런 개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세즈니(Sezni)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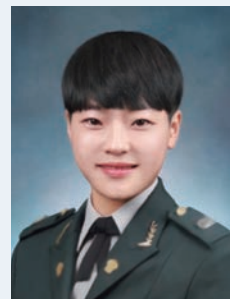
굳이 성 시트니와 저와의 관련성을 찾자면 억지춘양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자들은 물론, 세례성사를 해준 신부님들에게조차 낯선 이 후보성인의 이름은, 삶이 평범하지 않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 저에게 딱 맞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비록 미친개는 아니지만, 고양이 세 마리를 모시고 사는 저에게 맞는 세례명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공감이 갑니다.

3. 다짐

교리 공부할 때, 신부님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지 못하였냐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답변과 함께 익명의 기독교인(Anonymous Christian)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량하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게 신앙인의 기본 자세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되고 나서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전과는 달리 스스로에게 보다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점입니다. 물론 그 윤리적 잣대는 신앙에 기초한 것인데, 신앙인이 되기 전 50여 년의 삶에서는 이런 잣대들이 인간의 자유를 억누른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영세를 통해 새로운 이름과 삶을 얻은 이상, 타고난 죄성(sinful nature)에 압도당하기보다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신앙인의 향기가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해봅니다. 

독자

나의 신앙생활



윤채은 세실리아 / 군종교구

찬미 예수님!

저는 세례받은 지 1년 된, 아직은 새내기인 세실리아 윤채은입니다.

저는 종종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넌 왜 갑자기 성당을 다녀?”, “대체 네 종교는 뭐야?” 그도 그럴 것이, 어릴적 부터 저의 집안은 불교 집안 이었고, 어린 마음에 친구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현재는 저희 어머니께서는 개신교로 개종을 하셨고, 저는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을때는, 삶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지칠 때에 처음

으로 성당에 나가 무릎을 꿇고 고개 숙이며 눈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마음 따뜻해지고 위로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세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성당에 나가 기도드리며 주님과 친해지고 싶다고, 알고 싶다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싶다고 기도를 1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다니던 성당 신부님께서 미사는 1년 동안 다니는데 성찬 전례 때는 계속해서 나오질 않으니, 미사를 마치고 나가는 저의 어깨를 붙잡으시면서 물어보셨습니다.

왜 성찬을 받지 않으냐고, 그때 신부님께서 제가 세례를 아직 받지 않은 것을 아셨고 성당 다닌 지 1년이 지나고 나서야 교리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리공부를 하며 내가 몰랐던 주님의 이야기, 주님의 말씀을 배우니 내가 알던 것은 정말 작게 느껴졌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은 정말 높는데, 내가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면서 나의 삶이 끝나기까지 주님의



훈련 중

모습을 닮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성당에 나가 공부하며 기도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알기엔 무척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침내 세실리아라는 세례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 마지막에는 항상 “믿음을 갖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아직 나의 믿음이 부족함을 느끼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주님께 의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삶에 외롭고 지치거나,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의구심이 들 때 항상 주님께 나아가 기도드렸고, 조그마한 성과를 달성하거나 하루가 무탈히 지나갔을 때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저와 항상 함께 계심을 느껴가고 있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였고, 하느님의 부르심 아래 이 자리에 왔습니다.

70년 전 우리나라는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의 극심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전쟁은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켰고, “우리가 여기서 밀려나면 조국이 위태로워진다!”라는 생각 하나로 싸운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 아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지금, 북한의 도발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의 긴장은 국민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국가 신용도의 위기를 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 동료와 한 컷



나라의 평화는 지속되고 있으며 지금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과 군인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주시십시오.

평화의 주님, 오늘도 조국을 지키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을 굽어보시어 어려움을 이겨내는 굳건한 힘과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자녀들은 복음에 따라 더욱 충실히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군인들에게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주소서. 또한 군종 사제들은 굳건한 믿음과 열정으로 군인들을 보살피게 하시고 저희는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여 군의 복음화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평화의 임금이신 주님, 저희에게 굳은 믿음을 주시어 군무에 충실하며 참된 군인으로서 전우애를 나누고 조국과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 가족을 돌보시어 주님의 참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배움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도나텔로의 〈참회하는 마리아 막달레나〉

고종희 마리아 / 한양여대 교수, 미술사학자



▲ 〈참회하는 마리아 막달레나〉

나를 감동시킨 한 점의 작품을 꼽으라면 나는 주저 없이 도나텔로의 〈참회하는 마리아 막달레나〉를 선택하겠다.

도나텔로의 〈참회하는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전에는 지금과 같은 감동을 주지 못했던 것 같다. 같은 작품인데 다른 느낌을 받는 데에는 감상자의 나이 탓도 있을 것이다. 젊었을 때는 미술작품을 마음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양식사적 분석 등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의 피렌체 대성당 부속 박물관이 2015년 10월 문을 열기 한두 해 전 박물관 측은 일부 작품을 공개하는 형태로 문을 연 적이 있었다. 그때 〈참회하는 마리아 막달레나〉는 전시관 중앙에 임시로 세워져 있었으나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그런지 그다지 큰 인상을 주지는 못했다.

새롭게 단장한 박물관에 들어서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기라성 같은 피렌체 작가들의 이름이 새겨진 대형 벽면이다. 고리타분한 박물관이 아니라 모던한 느낌의 미술관으로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1550년 피렌체에서 출판된 바사리의 〈르네상스 미술가 평전〉에 소개된 주옥 같은 200여 명 작가의 전기 덕에 우리는 르네상스 작가들에 대해 그 어느 시대보다 소상히 알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을 이 벽에서 볼 수 있었다. 바사리의 이 명저는 2018년과 2019년 국내에서 총 6권 4000쪽이라는 방대한 책으로 한길사에서 출판되었고 나는 이 책에 해설을 썼기에 감회가 더하였다.

전시장의 작품들은 시대별, 장소별, 작가별로 최상의 상태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치되었다. 덕분에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아르놀포 디 캄비오, 안드레아 피사노 같은 고딕 거장들



▲ 피렌체 대성당 부속 박물관의 대형 벽면. 피렌체 작가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의 작품들도 집중하여 감상할 수 있었다. 이들 작품에 빠져있던 나는 도나텔로의 <참회하는 마리아 막달레나> 앞에서는 그만 심장이 멎는 듯하였다. 예술가의 영혼이 그저 경이로울 뿐이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성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성녀 중 하나다. 그녀는 르네상스 시대에 특별히 많이 그려졌는데 이유는 화가들이 이 성녀를 간음하다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과 동일시하는 바람에 금발의 아름다운 여인으로 즐겨 묘사하였기 때문이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간 중심 사상이 솔솔 피어나다 보니 이런 세속미를 풍기는 여인상들이 대중의 인기를 끌었던 것 같다. 물론 마리아 막달레나는 성경 어디에도 그녀가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였다는 근거가 없었으니 화가들은 잘못된 정보를 그림으로 그린 셈이다.

도나텔로의 <참회하는 마리아 막달레나>는 추의 미학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운 금발의 여인이 아니라 참회에 깊이 빠져 넋을

잃은 듯한 늙은 여인이다. 작품의 높이는 183cm이니 실제 인물처럼 느껴진다. 비쩍 마른 얼굴, 주름투성이의 목, 뺨한 눈, 나무토막 같은 몸, 게다가 맨발이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모습인데 두 손이 살짝 떨어져 있어 기가 흐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긴 머리카락은 아름다운 금발이 아니라 야생인간인 듯 헝클어진 채 치렁치렁하다. 그녀가 입고 있는 짐승 털옷과 머리카락은 경계가 없어 무엇이 머리카락이고 무엇이 털옷인지 알 수가 없다. 막달레나를 이처럼 짐승 털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그린 것은 그녀가 말년에 프랑스의 어느 외딴 섬으로 가서 은둔하며 참회의 삶을 살았다는 전설에 기인한다. 작가는 그 설에 따라 성녀가 이처럼 처절하게 참회의 기도를 바치며 늙어간 여인으로 만든 것이다. 당시 도나텔로는 평생 하느님 작업에 몸을 바친 70대 노대가였다. 그는 피렌체 대성당을 위해 참으로 많은 걸작을 남겼고, 시에나 대성당, 파도바 대성당

에도 그 지역 역사를 바꿀 조각작품들을 제작함으로써 피렌체의 르네상스를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산시킨 주인공이다. 평생 일한 작가로서 성녀의 모습은 자신의 모습이요, 구원에 대한 작가 자신의 갈망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도나텔로는 이 작품에서 극적인 자연주의, 완전한 리얼리즘에 도달했다. 이 무렵 피렌체 작가들은 고딕 미술의 전통을 이어받아 인체의 아름다움을 미화시키는 장식적인 형태를 즐겨 표현하였는데 도나텔로는 인간의 내면세계에 집중하였다. 이 작품이 놓인 곳에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고개를 왼쪽으로 살짝 돌린다면 바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보이게 되어 있다. 도나텔로가 있어 미켈란젤로가 존재함을 디스플레이를 통해 암시한 것이다.

이 작품은 도나텔로가 70대인 1455년에 제작되었다. 작품이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당대인들에

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당시에는 이런 추한 외모를 조각으로 표현하는 작가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당시의 피렌체 시민들은 일흔이 넘은 노대가의 걸작을 단번에 알아보았던 것 같다. 이 작품과 유사한 모작들이 제작되기 시작했고, 피렌체를 침략하기 위해 성 밖에서 진을 치고 있던 적군의 대장인 프랑스의 왕 샤를 8세가 이 작품을 구입하고자 시도했다니 말이다. 만일 프랑스 왕이 그 때 이 작품을 구입했다면 이 걸작은 피렌체가 아니라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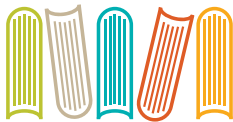
미켈란젤로는 젊은 시절 몇몇 작품을 아름답게 표현한 바 있으나 이후에는 아름답게 미화시킨 형태가 전무하다. 그는 일관성 있게 추의 미학을 추구했다. 바로 도나텔로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미켈란젤로를 탄생시킨 걸작이 바로 도나텔로의 이 <참회하는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해도 무방하다. 



▲ <참회하는 마리아 막달레나> 세부 이미지들

평신도 양서

정리
김선동 편집위원



우애의 발견

안셀름 그륀 지음 / 김선태 옮김 / 생활성서사 / 140×200 / 256쪽 / 15,000원

세계적인 영성 작가이자, ‘유럽인들의 멘토’로 불리는 안셀름 그륀 신부는 수많은 저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독자들은 그륀 신부의 글을 읽으면서 심리적 위로뿐 아니라 신앙의 선물 또한 얻을 수 있었다. 이 책은 한 개인의 성장에 가장 오랜 시간, 큰 영향을 미치는 형제자매 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륀 신부는 자신의 심리적·영적 성장의 근원을 자신의 형제자매들에게서 찾는다. 칠 남매 중 넷째였던 그는 자신이 성장했던 과정과 여러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상담을 했던 경험들을 돌아보면서 형제자매의 관계가 (그것이 우애든 경쟁이든)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인 타인과 맺는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형제자매 간의 우애를 위해 일종의 ‘관계 안내서’를 제시한다.



가시를 빼내시는 성모님

베르나르-마리 지음 / 조연희 옮김 / 가톨릭출판사 / 110×165 / 164쪽 / 10,000원

묵주 기도는 가톨릭 신자들이 가장 많이 바치는 기도 중 하나다. 많은 신자들이 묵주를 손에 들고 틈틈이 이 기도를 바친다. 그런데 이 기도를 특별하게 바치는 방법이 있다. 바로 9일 기도로 바치는 것이다. 특별한 지향이 있을 때나 큰일이 있을 때마다 신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묵주 기도를 바치곤 한다. 이 책은 특별한 지향을 담은 묵주 기도서다. 이 9일 기도는 나 자신의 치유를 청한다. 때때로 일상에서 받은 상처가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한다. 이 책은 이러한 상처들을 성모님께 9일 기도로 봉헌하며 영적으로 치유해 주도록 이끈다. 이 책에서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 나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려 하는 모습이 바로 ‘가시’라고 말한다. 이 가시는 우리의 힘으로는 빼낼 수 없기에, 성모님의 자애로운 손길로 빼내어 치유해 주시길 간청하는 것이다. 내 마음속 상처를 치유받길 원한다면 가시를 빼내시는 성모님께 바치는 9일 기도를 바쳐 보자. 자애로우신 어머니께서 예수님의 가시관을 당신 손으로 벗기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박힌 가시를 빼내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안셀름 그륀 지음 / 이승희 옮김 / 분도출판사 / 140×205 / 208쪽 / 18,000원

이 책은 그리스도교의 본질과 그 정체성을 밝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종교가 주는 해방과 치유,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길이 지닌 매력을 새롭게 일깨우려 한다. 그리스도교만의 특징을 밝히면서도, 그리스도교가 이웃 종교들보다 월등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웃 종교의 경험을 경시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교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 준다. ‘그리스도교가 다른 종교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을 새롭고 대단한 방식으로 보여 주기 위해 당신 아들을 직접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았고,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본질이자 정체성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 관계는 개인마다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개인적인 체험과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교의 특징이며 핵심이다.



불평 멈추기

살보 노에 지음 / 이창욱 옮김 / 바오로딸 / 140×200 / 232쪽 / 13,000원

이 책은 불평의 원인과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넘어 불평을 멈추면 어떤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불평을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소개한다. 저자 살보 노에는 불평 멈추기를 단순히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의 ‘불평 멈추기’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각과도 맥이 닿는다. 저자가 ‘불평 멈추기’, ‘판단 멈추기’ 포스터를 구상했을 때 프란치스코 교황은 불평과 판단을 하지 말자는 취지의 강론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불평이 우리에게서 희망을 앗아가기에 “불평하는 것은 나쁩니다.”라고 단언하면서 “주님은 어려운 순간에도 늘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권고한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돼 있다. 불평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는 ‘1장 왜 불평하는가?’, 불평을 학문적으로 분석한 ‘2장 누가 불평하는가?’, 불평에서 벗어나 새롭게 살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한 ‘3장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이다.



길 진리 생명 해설 성경 - 지혜문학 편

안소근 편역 / 성바오로 / 152×225 / 640쪽 / 25,000원

이 책은 교의적, 성서학적, 전례적 해설로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진리, 성서학적 해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영성적, 신학적 해설), 어떻게 하느님과 일치할 것인가(생명, 전례적 해설)라고 하는 세 가지 차원의 성서 독법을 제공한다. 한국 교회에 현재 꼭 필요한 사목적 성경 해설이다. 위대한 성경학자였던 성 예로니모는 “성경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하였다. 모르는 것을 사랑할 수는 없는 법이다. 알아야 사랑할 수 있으며 더 많이 아는 이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에 성경은 그분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분명한 길이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앎과 사랑은 사고방식과 삶의 변화와 같은 우리 실존의 변화로까지 이어진다. 이처럼 하느님과 맺는 관계에서나 우리 존재의 차원에서나 성경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기에 성경을 잘 아는 것은 신앙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한국평협, 제53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손병선, 담당사제 조성풍, 이하 한국평협)는 지난 2월 8일, 서울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에서 제5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9년을 결산, 2020년을 사업을 확정했다.

올해 한국평협은 스마트폰 과의존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시작한 '스마트 씬' 운동과 생활 속에서 가족과 이웃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감사 나눔' 운동을 집중 전개한다. 더불어 평화를 위한 기도과 활동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문을 배포하고, 희망의 사회를 이루기 위한 총선에 참여하기로 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문화 사목에도 힘을 예정이다.

임원개선에서는 제22대 손병선 회장이 연임됐다. 손 회장은 "새로 주어진 임기 동안 여러 회장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시노드적 교회의 모습을 구현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사제 조성풍 신부(서울대교구 사목국장)도 "작년 한 해 동안 '시노달리타스, 함께 가는 길'에 집중했다. 올해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시노드 정신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노력이 하느님, 각 교구, 한국교회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하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총회 후 제36회 가톨릭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번 가톨릭대상은 40년 간 호스피스 활동을 이어가며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헌신적 사랑을 보여준 이경식(바오로) 박사가 수상했다.

파견 미사를 집전한 손희승 주교(서울대교구 총대리)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자. 늘 주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청하며 기쁘게 봉사할 수 있는 평신도가 되어달라."고 당부하며 총회 마무리 인사를 전했다.

● 한국평협 임시총계회의



한국평협은 지난 4월 4일, 대전교구청 회의실에서 한국평협 회장단과 각 교구평협 회장 20명이 모여 임시 총계회의를 가졌다.

이번 임시 총계회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시됨에 따라 4월 17~18일로 예정된 한국평협 총계 상임위원회가 취소되면서 긴급한 안건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손병선 회장은 인사말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있는 시기이지만 각 교구 회장, 단체장

은 교회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할 수 있는 일과 역할이 있다고 여겨져서 불가피하게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회의 소집 배경을 설명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미사가 재개되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겠지만, 미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신자들이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드는 데 우리가 보탬이 될 부분을 찾아보자."며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이어서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가 참석자들을 만나 지난 3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춘계 정기총회에서 2021년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아 2020년 11월 29일(대림 제1주일) ~ 2021년 11월 27일(대림 제1주일 전날)을 한국 천주교 차원의 회년으로 선포한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의 일정을 공유했다. 유 주교는 마무리 인사에서 "김대건 신부님이 유네스코 인물로 선정된 배경(그분의 삶, 정신)을 교회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회의는 다음의 총 5개 안건을 다뤘다. ① 2020년 예산 확정 ② 4·15 총선 참여 관련 한국평협 호소문 발표 ③ 가정 선교 체험 공모 계획안 ④ 6/1부터 전국 본당 대항 '굿뉴스 모바일 성경 쓰기' 이벤트 계획안 ⑤ 가톨릭 대상 운영 규정 개정안, 교구별 후보자 추천 안내

가정 선교 체험 공모 계획안은 선교를 강조하는 교구들이 많고 선교는 평신도에게 주어진 사명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이번 공모를 통해 많은 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새로 추가되는 사업으로 '굿뉴스 모바일 성경 쓰기'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코로나19로 인해 신앙 생활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 시기에 성경 말씀을 맛들이며 슬기롭게 이겨내 보자는 취지로 '굿뉴스 모바일 성경 쓰기' 사업을 한국평협 주최 사업으로 추가하는 내용이었다. 계획안 취지에 대해 모두 찬성하였으며, 홍보와 시상에 관해서는 좀 더 의견을 모아 세부계획을 나누기로 했다.

회의 후 손병선 회장이 4·15 총선에 즈음한 호소

문을 낭독하고 참석자들이 함께 "인물, 정책 OK, 꿈수, 포폴리즘 OUT" 피켓을 들고 호소문 말미의 네 가지 권고를 복창하는 퍼포먼스를 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2020년 제50회 서울평협 정기총회 개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손병선, 담당사제 조성풍, 이하 서울평협)는 지난 1월 18일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에서 제50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0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서울평협은 올 한해 '믿음과 사랑으로 새 희망을!'을 활동 지표로 삼고, 선교 관련 사업에 집중,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를 위해 교향 문헌 과정 등을 신설한다. 또한 아시아 교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특별히 스마트 씬과 감사 나눔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임원개선에서 손병선 회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2년 동안 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직분인지 실감했다. 지금까지의 미완의 일들을 완성하고 발전시키라고 연임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2년 동안 평협을 열심히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사제 조성풍 신부는 "작년에 '시노달리타스'가 큰 이슈였다. 박해시대 주문도 신부, 최인길 마티아, 강완숙 골롬바의 삶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시노달리타스의 모범이라고 생각한다. 서로를 위하여 묵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다면 22대보다 더욱 성숙한 23대 평협이 될 것이다."고 말하며 새로

운 임기를 시작하는 평협을 격려했다. 회의 후 이어진 파견미사는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송 주교 집전으로 봉헌됐다.

● 서울평협, 소외계층 위한 구호물품 · 기금 전달



서울평협은 지난 3월 12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외계층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구호물품과 기금을 지원했다.

이날 오전, 서울평협 손병선 회장과 임원들은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들에게 무료 도시락을 나누는 봉사를 이어 오고 있는 '가톨릭사랑평화의집'에 현장 방문하여 마스크 300매, 손세정제 60박스, 따뜻한 도시락 400개를 전달했다.

오후에는 돈의동 쪽방촌 '해뜨는 주민사랑방'에 방문하여 재난에 취약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구호기금 200만 원, 마스크, 손세정제를 전달했다. 서울평협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초 한국평협도 확진자 급증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 이웃을 위해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목국에 마스크 1000매, 손세정제 400박스

를 지원한 바 있다.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및 임원연수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이종명, 담당사제 김주영)는 1월 17~18일, 강릉 옥계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여성수련원에서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및 임원 연수를 하였다.

연수에서는 사목국장 김해종 신부가 2020년 교구장 사목교서인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갑시다'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특강 후 3개조로 나누어 평협의 주요 활동에 대하여 분임토의를 하고 발표를 한 후, 의견을 나누고 중점 내용은 평협 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연수를 통해 지난해 사업실적을 검토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평협이 추진하는 사업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자랑스런 춘천교구 평신도> 발간

춘천평협은 2019년 춘천교구 설정 80주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숨겨져 있는 교구의 자랑스런 평신도를 발굴하여 그분들의 신앙적 삶의 표양을 배우고 본받기로 했다.

이 뜻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협 안에 자랑스런 평신도 발굴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자랑스런 평신도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며 2020년 2월 22일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에 <자랑스런 춘천교구 평



신도>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자랑스런 춘천교구 평신도>에는 평신도 아홉 분의 삶의 사례가 소개 되었다.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 각 본당에서 본당의 자랑스런 평신도를 자발적으로 찾아내고 그분들의 헌신적 봉사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본받으려는 노력이 시작되기를 기대해 본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대전평단협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식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2월 1일 대전 교구청 경당에서 평단협 25대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25대 명동술(시몬) 회장을 비롯해 20명의 상임위원이 교구장 유흥식 주교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마산교구 평협 제50차 정기총회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총회장 한일문, 담당사제 최봉원)는 지난 2월 1일 마산 웨딩그랜드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26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하였다.



행사에서는 시작기도와 더불어 담당사제, 본당회장, 교구단체장, 교구회장단 소개가 이어졌고, 지구별, 단체별 순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었다.

한일문 총회장은 2020년 교구 평신도 사도직 활동 지침서 발표를 통해 교구평협의 개요와 사업을 안내하였고, 교구장 사목교서 지표에 따라 희년을 사는 교구 평협인의 중점실천사항으로 봉사와 나눔을 통한 사랑실천의 복음화 활동 전개, 환경 살리기의 생활화 운동전개 등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기총회에서는 2019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그리고 2020년 사업계획과 예·결산 심의가 있었다. 또한 교구평협 제26대 임원이 선출되었다.(총회장 백균철 바오로-사림동성당, 수석부회장 최종록 대건안드레아-영산준성당, 여성부회장 최남순 스텔라-사림동성당, 감사 장원홍 스테파노-칠암동성당, 임명섭 빈첸시오-옥포성당)

이어서 진행된 제11회 복음화대상 시상식에는 창원 덕산동성당 우성9구역 소공동체가 선교최우수상을, 창원 덕산동성당 조정래(율리아)씨와 창원 사파동성당 창조주의 모후 Pr.이 회대대상을 수상했다.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숨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봉사상을 추가하여 5명이 수상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교구평협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실시한 '사랑의 돼지 저금통 키우기 운동' 기금을 배기현 주교를 통해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구장과 신년하례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신동열, 이하 광주평협)와 여성위원회 전 임원은 1월 1일,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와 총대리 옥현진 주교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고 다과를 나누며, 2020년 평협과 여성위원회의 주요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고 주교님들의 당부 말씀을 들었다. 특히 주교님들께서 교구를 대표하여 봉사하는 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 평협(제49차), 여성위원회(제16차) 정기총회



광주평협은 2월 1일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대건문

화관에서 제4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서는 2019년도 사업실적, 결산, 감사보고와 2020년도 사업 및 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광주평협은 주교님과 함께하는 도보성지순례, 평신도 아카데미 <리더십 과정 4기>, 평신도의 날, 사목협의회장 직무교육 등 활발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 제36대 임원 선출로 회장 신동열(리카르도), 감사 신인현(요셉), 김혜숙(안젤라)가 연임되었다.

또한 여성위원회 제16차 정기총회를 함께 실시하였으며, 제9대 임원 선출로 위원장 정은희(글라라), 감사 이연옥(레지나)가 새로 선출되었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작은 사랑 나눔 운동' 전개

광주평협은 3월 21일, 광주대교구 전 교구민에게 코로나19로 미사가 중단되고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이 고난을 극복하자는 취지의 웹자보를 제작하여 '작은 사랑 나눔 운동'을 펼쳤다.

신동열 회장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갖고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할 때 이 시련의 시기를 하루 빨리 이겨내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만큼이나 '심리적 거리 없애기'도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무엇보다 주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을 키우고 사랑으로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자."고 말했다.

1.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위생 준수에 적극 동참합시다.
2. 사랑의 헌혈로 생명나눔을 실천합시다.
3. 공적 마스크는 필요하신 분을 위해 구매를 양보하고 또 나눔시다.
4. 코로나19 환자와 가족, 격리자, 의료진, 봉사자, 수

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 본당 관할 내 소상공인 가게나 식당을 이용해 줍시다.
6. 본당과 이웃 어르신께 안부 전화로 외로움을 달래드립니다.
7.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이웃과 지역에 대한 비난, 혐오보다는 격려와 배려, 위로와 희망을 전합니다.
8. 미사 중단에 따른 교구와 본당의 권고 사항을 성실히 실천합니다.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2020년 평단협 신년 교례회 및 정기총회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한병성, 이하 전주평단협)는 1월 4일 전주교구청 4층 강당에서 교구 평단협 임원 및 각 본당 사목회장단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신년하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정석(라파엘) 교리신학원장을 초청해 평신도의 역사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2부에서는 정기총회가 진행되어 2019년 사업결산보고·감사보고, 2020년 사업계획을 위한 협의가 있었으며, 25기 평단협 회장으로 한병성 회장을 재선출했다.

이후 김선태 주교가 파견미사를 집전했으며, 친교행사를 통해 평신도로서 신심을 다지고 자랑스런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 대구대교구 마스크 후원

전주평단협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대교구 교우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보내기로 의견을 모으고 후원금을 모금하여 3월 9일 마스

크 2000장(360만 원 상당)을 보냈다.

주님의 자비로 하루빨리 어려움이 치유되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며 교우들이 힘내시길 기도한다고 전했고, 대구대교구로부터 감사의 화답도 받으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 전주교구 평단협 꾸러미 이용으로 우리농 살리기 운동 전개 앞장

전주평단협은 코로나19로 농산물이 판매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톨릭 농민들을 위해 우리농 살리기 일환으로 우리농 꾸러미 동참 운동을 벌이며 농민들과 어려움을 나누고 있다.

우리농 꾸러미는 박스당 25000원으로 유정란 20구, 콩나물 300g 우리콩두부 3모, 딸기요구르트 500mg 1병으로 포장되어 있어 생명농산물의 가치 있는 나눔이 되고 있다. 전화주문 063-282-4204.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평협 1/4분기 상임위원회 개최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고용삼, 이하 제주평협)에서는 2월 6일 교구청 2층 회의실에서 2020년도 첫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와 추진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정기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지난해 사업을 결산하고, 새로운 사업계획 마련, 예산안을 심의하여 총회 부의 안건을 확정지었다. 아울러 평협 임원 대상의 영성 활성화를 위한 공부방 운영 지속화와 총회를 구

성하고 있는 전 회원 대상 워크숍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각종 사업과 행사에도 전 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 2020년도 교구평협 정기총회 개최



제주평협은 지난 2월 22일 가톨릭회관에서 본당 총회장과 임원 및 교구 단위 단체장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실적 보고와 결산을 승인하였으며, 금년도 사업계획을 비롯한 예산안을 확정지었다.

또한 총회에 앞서 평협 담당사제 황태중 신부가 교구장 사목교서의 실천 방향을 설명하고, 현요한 신부의 훈인 멘토의 필요성에 대한 특강도 병행 실시되었다.

개진된 내용으로는 평협 사업계획 수립 시 평신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해 달라는 요구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급적 다수인이 참석하는 회의는 중단되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 사제의 날을 맞아 간담회 개최



제주평협은 매년 사제의 날 성유축성미사에 함께

한 후 주교님을 비롯한 교구청 신부, 원로사제, 골롬반 신부 및 엠마오 연수원에 와 있는 사제들을 모시고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아 오찬 간담회를 가져왔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평신도들이 미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4월 9일 막중한 사명을 다해 주고 계시는 두 분 주교님과 사제들, 그리고 수녀님들을 모시고 평협이 주관 하에 60여 명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고 오찬을 제공하여 사제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했다.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운동)

● 창설자 끼아라 루빅 탄생 100주년 기념 '말씀모임'



포콜라레 서울 소지역이 주관한 '말씀모임'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제주 등에서 구역공동체별로 진행되었다.

포콜라레 초창기의 삶을 본받아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더욱 깊게 복음화하기 위하여 다른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사제와 수도자를 포함하여 남녀노소 1,122명의 회원이 114개 그룹으로 나뉘어 매주 복음의 한 말씀을 선정하여 실천하고 결실을 함께 나누었다. 복음의 삶은 기쁨과 평화 안에 모두를 한 가족, 참형제로 묶어 주었다.

● 영남지역 회원 연례피정

포콜라레 영남지역 회원 연례피정이 지난 1월 11~12일 경주 코모도 호텔 대강당에서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피정에서는 창설자 끼아라 루빅



탄생 100주년을 맞아 준비된 특별 영상과 함께 포콜라레 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는 골든벨 퀴즈 시간과 시상식을 가졌다.

포콜라레의 영성은 '서로 간의 사랑'을 통해 '일치'에 이르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새롭게 바라보자는 의미에서 '자비의 서약'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1949년 포콜라레 초창기에 주어진 '빛의 은총'에 대해 더욱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되었다.

● 포콜라레운동 창설자 끼아라 루빅 탄생 100주년 기념 미사



1월 22일,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30여 개의 성당에서 '하느님의 종'으로 올린 끼아라 루빅을 기억하며 시복 시성을 기원하는 미사가 봉헌되었다.

'젠 성가'가 울리는 미사에 많은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들이 참석했다. 미사 후에는 창설자의 생애 및 회원들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경험담이 소개되었고, 그가 교회에 남긴 '친교의 영성'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

● 코로나19 위기 속 '이웃 사랑 실천'

포콜라레 젊은이(2젠)와 청소년(3젠) 및 어린이(4젠)들이 주축이 되어 이웃 사랑을 실천한 구체적인 여러 경험담이 3월 19일 대구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었다.

젊은이들은 모금 운동과 더불어 마스크 선물하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일반 회원들은 핸드메이드 생강차와 손편지 등을 대구 의료진에게 전달하고, 어린이들은 1860개의 부활 달걀에 그림을 그리고 정성스럽게 포장하여 성남시 '안나의 집'의 노숙자들에게 선물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포콜라레운동의 다양한 활동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예정이다.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

● 2020년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 총회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 정기총회가 지난 2월 7~8일 협의회 산하 7개 교구 총 69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교구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에서 실시되었다.

첫날 총회 안건으로 2019년도 결산·사업보고와 2020년 사업계획·예산심사 및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임기 종료 윤대인 회장을 재추대하여 22대 차기 회장으로 선출하고, 2021년 전국협의회총회 개최지를 서울대교구(1월 22~23일)로, 2021년 전국협의회 회원피정 개최지를 제주교구(11월 5~6일)로 의결하였다.

미사는 손병익(루카) 총대리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으며 이튿날 성인들의 신앙촌이었던 배티성지와 최양업 신부 박물관을 방문하여 신앙을 견고히 하는 순례의 시간을 함께 하였다.

한국가톨릭농민회협의회

● 故 한 마리아 선생 추모회



한국의 농민운동, 여성운동을 위하여 한 평생을 다 바친 故 한 마리아(한애라, Maria Sailer, 2019년 12월 13일 선종) 선생의 추모식이 1월 8일, 대전 대철회관에서 열렸다.

한 마리아 선생은 27세 때 독일에서 연고 하나 없는 한국으로 와서 가톨릭농민회에서 국제대외업무를 맡으며 독일로 귀국하기까지 29년 동안 한국의 농민운동과 여성운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분이다.

두봉 주교(안동교구, 파리외방전교회)의 집전으로 추모 미사가 진행되었고 이어 한 마리아 선생을 추억하는 추모식이 이어졌다. 이날 추모식에는 한 마리아 선생을 기리는 가농 동지회 선배들과 원로사제, 여성계, 신협 등 86명이 함께 자리하였다.

● 한국가톨릭농민회협의회 제50차 대의원총회



한국가톨릭농민회협의회(회장 정한길, 담당사제 안영배)는 지난 1월 30일, 대전교구 대철회관에서 제50차 대의원총회를 진행하였다.

대의원과 참관자를 포함해 119명이 한자리에 모여 미사로 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에서 27대 회장단이 선출되었다. 회장은 정한길 베네딕토(안동교구)가 연임되었고, 부회장으로는 신흥선 임마누엘(원주교구), 한영석 베드로(전주교구), 서봉석 미카엘(마산교구)이 선출되었다.

2020년 한국가톨릭농민회협의회는 스스로를 살리고 땅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고 못 생명을 살리며 '생명 공동체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활동계획을 보고하였다.

● 故 최병욱 회장 가톨릭 농민장



한국가톨릭농민회협의회 전국회장(5-7대)을 역임한 故 최병욱 아오스당이 2월 18일 선종하였다. 1996년 14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대전충남민주화운동에 평생을 바쳐 활동하며 농민회 안에서 큰 역할을 해온 최 회장의 부고 소식에 많은 이들이 빈소를 찾았다. 가톨릭농민회는 최병욱 아오스당 회장을 기리며 가톨릭농민장으로 추모미사부터 추모식, 장지에 모시는 일 등 끝까지 함께하였다.

Editor's Letter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기

2020년 초반 우리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맞이하였다. Covid-19라 명명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이라는 뜻하지 않은 겨울 불청객은 우리나라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며 한국에 천주교가 전래된 이래 처음 맞이하는 미사 중단이라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사순시기 중에 사태가 진정되어 부활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부활절 미사마저도 참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모습은 바티칸도 예외일 수가 없어 교황님의 부활절 미사가 바티칸 성당 내에서 제한된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초유의 모습을 위성중계로 지켜보기에 이르렀다. 가톨릭 주교회의에서 전염병에 대한 신자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미사 중단을 결정하였다. 또한 평화방송의 중계를 통한 미사참여를 권고하였으며 신령성체를 허용하였다. 신자들은 이 기간에 통상적으로 진행하던 미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범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가슴에 새기며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기에도 우리 평신도 잡지는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독자들에게 정시에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편집회의를 대면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비대면을 통한 편집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모든 위원들의 협조 하에 순조롭게 원고가 준비되었다. 또한 평협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도록 검토하여 실시간으로 영상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위원회 회의나 회장단 회의 등도 첨단 IT 기술을 활용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평협의 임원들에게 새 시대의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호는 감사나눔을 특집 주제로 정하였다. 금년도 평협이 목표로 하는 캠페인 중의 하나가 감사나눔인데 우리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감사하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알 수 있으므로 독자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름 호가 발간되는 6월은 호국의 달이다. 그러므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의 선조를 기려야 하는데 마침 군종교구에 있는 독자의 투고를 받게 되어 국토방위에 노력하며 신앙을 가꾸어 가는 모습을 보는 기회가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평신도 잡지는 항상 전국 신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느낀 점을 진솔하게 작성하여 주면 영성에 도움이 되므로 독자들의 투고를 언제나 환영한다.

편집장 권영빈 가브리엘 올림

"평신도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평신도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내용은 현재 칼럼으로 연재되는 나의 신앙 선조, 주보성인과 나 등입니다. 또한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이나 영성체험 등도 좋습니다. 성지순례는 이미 내용이 풍부하여 사양합니다. 독자의 투고는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A4 용지 1,5매 정도입니다. 별도로 본인의 얼굴사진과 본문과 관련된 사진을 첨부하고 연락처와 번호를 남겨주면 됩니다. 접수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게재할 예정이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지불합니다. 투고는 clack-hongbo@daum.net으로 하면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투고를 기다립니다.

교구평협, 회원단체 소속

『평신도』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평협에서는 계간 『평신도』와 함께할 명예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별로 한 명의 명예기자를 선정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는 앞으로 『평신도』에 관련된 각 교구와 단체의 소식과 사진자료 등을 정리해서

한국평협 사무국 ☎ 02)777-2013, FAX 778-7427, 전자우편 clak0723@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명예기자는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명예기자 명단(2020년 6월 현재)

소속	이름	세례명	이메일 주소
서울평협	염지유	로사	clas@clas.or.kr
춘천평협	이정란	미카엘라	kino70@hanmail.net
대전평단협	강현인	글라라	vingib@hanmail.net
인천평협	장영철	아우구스티노	kgph@caincheon.or.kr
수원평협	서덕희	미카엘라	pyonghyop@casuwon.or.kr
원주평협	백정현	임마누엘	obdo@obdo.co.kr
의정부평협	김현채	바오로	prwsave@naver.com
청주평협	이상철	방지거	howareyoulee@naver.com
마산평협	최명숙	안젤라	clacms@hanmail.net
안동평협	신춘덕	로사	s9581@hanmail.net
광주평협	정춘자	로사	jlosa1208@hanmail.net
제주평협	강수미	도미니카	enjoy7508@hanmail.net
구르실료한국협의회	김미녀	리디아	oh-mn@hanmail.net
성빈첸시오아바오로회한국이사회	김영철	마티아	ssvpk@hanmail.net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문호	토마스	younamedia@hanmail.net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김정현	도로테아	webmaster@blindmission.or.kr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전국협의회	서선미	로사리아	cmi1021@hanmail.net